

第二編 祖上의 얼과 슬기

第一章 伝 説

1. 猪頭穴의 내력

廣州 實村面 悅美里와 昆池岩 墓防洞間의 昆池岩川이 支流와 合水되는 물
머리에, 山밀에 큰 바위가 있어, 屏風같이 둘려있고, 그바위 위에 陵城 具氏의
墓가 一基 있으니, 이墓가 俗稱 猪頭穴의 事緣이 있는 곳이다.

其바위 인즉 글자 그대로 큰 산돼지 머리와 주등이를 駭었다하여 猪頭岩
이라고 하며, 그바위 밑에는 깊은 높이 있었으니 이를하여 獨竈沼이다. 只今은
沼가 메워치고, 큰 논으로 開畠이 되었으며, 큰 工場이 附近에 세워졌으나, 지
금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其前에는 사람들이 敢히 近接을 꺼려하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그 웅덩이에 깊이는 알 수 없었으나, 늘 푸르고 깊은 물이
괴여 있어, 용이 되다만 아무기가 사느니, 한발이 더되는 잉어가 노는것을 보
았느니 하던 곳이며, 주먹만한 우렁이가 떼지어 살던 곳이다. 물이 깊고 人
跡이 들히 드는 곳이라 도깨비가 나타날 法도 하지만은, 或 사람들이 來往하다 빠
질가 저어하여 獨竈소라고 이름하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猪頭穴은 이렇듯 저
렇든間에 奇妙하게 地形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 猪頭岩에서 시내를 건너 五百步許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 吸似 산돼지
가 甘藷(고구마)를 앞에 놓고 있는 形局이다. 이쪽박山 허리가 아리랑고개라
하여 주막이 있던 곳이다. 아무튼 이곳에 傳說이 있으니, 來歷인즉 이러하다.
이墓는 英祖때 具時昌이란 분을 葬墓한 곳이니, 그는 平時의 性情이 매우 어
질고 착하였으며,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하다 世上을 떴다. 그가 生存時에 늘
死後의 安宅을 매양 생각하여 왔다. 그러든 어느날 한 高僧이 찾어왔다. 정
중히 저녁을 待接하고 留하고 가도록 하였다. 밤이 깊도록 情談이 오고간 끝
에 自身의 신위地를 이야기 하게되니, 老僧曰 『小僧이 아는것은 없아오나, 눈
여겨 둘려본즉 猪頭岩 위에 可히 一封墓를 쓸만하며, 墓地는 좋겠으나, 산돼
지 주등이 形局으로 되여 있으니, 꼭(반드시) 碑나 床石은 建立치 않는것이
좋겠다 하였다』 時昌 亦 마음에 治足히 여겨, 子女들에게 이야기 하고, 世
上을 뜨게되니, 子女들이 모두 孝를 하던터라, 遺言대로 葬禮를 정성드려 모시
되 床石이나 墓碑等은 세우지 않았다.

其后 오래지 않아 時昌의 아들 四兄弟가 登龍(用)되어, 나라의 重臣의 位
에 나가는 榮譽가 있었다. 其中 一子는 渭原郡守였고, 一子는 順天府使에 이르

렸다. 其后 어느날이었다. 때의 王인 英祖께서 利邑(川) 行宮으로 해서 麗州 英陵으로 行次하시는데, 昆池岩을 거쳐서 가시게 되었다. 御鶴가 猪頭岩을 바라다 보이는 아리랑고개를 지날적에 王께서 墓所를 바라보며,歎息하여 가로되 참으로 名地로다. 저렇듯 奇妙한 墓地에 어찌하여 墓碑가 없는고, 하고 물으시매 侍臣이 『仔細한 것은 모르오나, 墓인즉 反政功臣 忠烈公 具政承의 后孫, 時昌이란 者의 墓임에 틀림없읍니다』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께서 石物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 하셨다한다.

其后 子孫이 王의 뜻을 傳하여 듣고, 碑를 세우며, 墓下에다 세웠다. 그러던中 그 어느때인가, 무슨 일로 인하여, 다시 碑石을 山所옆 猪頭岩 위에 올려 세웠다 한다. 그후 칠병이 돌아 門中에 몇사람이 세상을 뜨게되고, 우환이 끊이지 않아 우울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날, 風雨가 大作하고, 뇌성번개가 天地를 振動하더니, 山上에서 내려쏟는 물은 碑石을 독갑소 밑으로 밀어넣고, 激流는 다시 둘을 밀었다. 물론 子孫에게도 약간의 變이 있었다 한다. 其后 다시 山所밑 現 位置에 具氏一門에서 議論이 있어 神道碑를 세웠다 한다.

그보다 앞서 일이다. 時昌이 世上을 뜨자 葬禮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墓地는 本是 具氏의 先山이였으나, 그 자리에 이웃하여 安東權氏 一門의 里亭이 있었다 한다. 葬禮를 뵈시자니 自然 里亭을 뜯어야만 하겠으나 權門에서 協助하여 줄리 없었다. 襄家에서는 매우 難色한 形便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處地를 傳해들은 鄉儒들의 권유로 為先 葬禮를 치르기로 하고, 한편 權氏門中에 통첩을 보내 알리고, 夜半에 里亭을 밤새워 헐어 뜯어 치우고, 철야作業을 强行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葬禮를 마치고 成墳을 完了하니 날이 밝았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돌아왔다.

權門에서는 一大 亂異가 났다. 밝는날 門中이 모여 宿議한 끝에, 破墓하기로 作定하고 팽이와 삽을 메고 폐지어 墓所로 달려갔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곳이 本是 山虎가 出沒한다는 말이 있던 곳이긴 하였으나, 虎랑이를 본자는 없었다. 바로 그곳에 지난밤 葬禮后, 어디서부터 왔는지, 數未詳의 큰 호랑이들이 사람의 근접을 못하도록 墓所 바로 곁에 누워서, 呻呼하고 있지 않은가 쫓고저 하여도 쫓기지도 않고, 둘을 던지면 그럴수록 더더욱 성을 내어 亂暴하여 지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墓앞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그만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듯 되돌아왔다. 一但 호랑이가 되돌아 가는 다음날 기어코, 破墓 키로 하고 헤어졌다.

그 다음날 담력이 가장센 壮年을 先頭로 하고, 人員을 增强하여 다시 어제의 墓앞에 이르니 “괴이한 일이로다” 호랑이 무리들이 墓所를 守護하듯 墓

주위를 땀들고 있지 않겠는가! 이쪽의 人員이 증강된 반면, 저쪽 호랑이도 수를 늘렸다. 뿐만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오리라고 짐작이라도 하였다는듯이 여유 만만히 이곳을 응시하고 있지 않은가! 야단이로다, 또 낭패로다 하고, 그냥 되돌아 올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다음날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하는 수 없었다. 문중이 모두 모였다. 權門도 또한 행세하는 집안이고, 또한 識見이 높은 집안이였다. 이때 權門의 族長이 점잔케 한마디 말하였다.

『여보슈 族從諸位들, 옛부터 萬物은 하늘이 냈고, 하늘의 뜻에 따라 人類는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야함이 常道입니다. 그렇다면 크고 적은것이, 각각主人이 있는 것인즉, 어제의 主인이 오늘 바뀜도 이또한 天意인지라, 어제까지의 里亭은 오늘의 “具大人”의 신위지가 됨도 天意가 아니겠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보도 듯도 못하던 저 호랑이들이 보호하고 있겠오. 하늘뜻을 거슬려 호랑이를 쫓다 門中人の 누구 한사람이라도 해를 입을까 걱정되니, 차라리 天意를 따라 具門의 양보함이 좋을것 같으오』하니 座中은 물을 끼얹은듯 말이 없이 조용하였다. 이윽고 族長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제종 여러분 어떻겠오, 모두들 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同意하여 뜻을 같이 하였다. 다음날 權門에서는 具門을 찾어 뜻을 傳하고, 그 다음날은 具門에서 다시 權門을 찾았다. 물론 즐거운 출장이 오고 가면서, 情談은 감사하다는 人事말과 함께 끝이 없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는 오늘까지도 情誼는 變함없이 흐르고 있다. 아니 故鄉을 함께 하는 子子孫孫이 이어가는限!! 흐르고 또 이어질 것이다.

2. 窓死골 金土女의 伝説

실촌면 오향리에 원사골이 있으니 지금은 원수골이라 하니, 그곳에 얹힌 김사녀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지금은 마을住民이 거의 떠나 2~3戸에 지나지 않는 산골 마을이다. 그러나 먼 옛날에는 이곳에 점마을이 있었고, 만가도 五十餘戸나 되여, 제법 흥청대던 마을이였다. 이곳에 응기점이 있고, 응기를 사려오는 의지 사람들의 왕래도 찾았다 한다. 이마을에 金土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배움은 없었으나 마음이 꽉 착하였다. 그가 늙으막에 一點 血肉을 얻으니, 이를하여 金土女이다.

그녀는 어려서 부터 매우 영리하였고,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그 아비는 점역을 하는 점꾼으로 생활이 매우 궁색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나이 10세에 한마을에 사는 정도령에게 시집을 가니, 그때 정도령의 나이 18세의 총각이였다. 그집 살림은 넉넉하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알뜰한 살림이 지속되었다.

정도령의 나이 25세가 되자 김사녀의 나이 芳年十七才, 바야흐로 성숙하여 가는 사녀의 용모는 笑簪과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정도령이 장년이 되자, 아비와 같은 점꾼 마을의 궁색한 살림살이가 싫었다. 그는 몇번 外地를 들낙이더니, 뜻을 세워 공부하고 입신성공하여 보겠으니,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였다. 그때 그의 어미, 아비가 있었는데, 『아파 이놈의 자식 깔지 않고 밥먹고 살면됐지 너같은 위인이 무슨 입신이냐』하며 허락치 않았으나 김사녀는 그의 남편의 소원인지라, 칙실하게 알뜰살뜰 모았던 가산을 정리하여, 그의 남편인 정서방에게 주었다.

정서방은 행낭을 갖추고 송경 부근에 가서 명사에게 공부하겠노라, 집을 떠나고 보니, 김사녀 훌로 늙은 시부모를 섬겨야만 했다. 비록 가산은 없었으나 김사녀가 몸을 돌보지 않고, 주야로 성심성의 최선을 다하니, 삶의 즐거움이 있었고, 아울러 시부모의 귀염도 받았다.

정서방이 떠나든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또한 즐거움이 더하였다. 열네고 달래이며 정서방의 입신성공하고 돌아올 날만 기다리니, 즐거운 나날뿐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통의 글월이 정서방으로 부터 인편에 보내져 왔다. 반가워라 허둥지둥 개봉하여 보니, 정서방왈 이제껏 발분망식하여 칙실히 공부를 하고 있으나, 여비가 다되어 몹시 궁색한 지경이니. 어떻게든지 마련하여 차인편에 보내 달래는 것이였다. 워낙 마음씨 착한 김사녀인지라, 꼭 갚겠노라 하여 적지 않은 돈을 점주로 부터 구어다 글월과 함께 인편에 보내주었다.

그날로 부터 김사녀는 빌린돈을 갚고자, 몸이 앗끼고 찢기도록 성심껏 일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정서방이 성공하여 돌아오리라 생각하니, 마냥 즐거웠다. 시부모가 안녕하고 귀염동이가 달로 켜가니 말이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운명의 장난은 예의치만은 않았다. 뜻을 세워 금의 환향하겠노라고 집을 나간 정서방은 인편의 보내준 돈을 기방과 주색에 눈을 뜨고, 또한 노름까지 하여, 사흘이 못되여 탕진하고 보니, 돈은 떨어지고 또한 공부한바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면목없이 내 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랴 하고, 팔도를 유리결식하며 떠돌이가 되였다. 이후 집으로는 한번도 신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김사녀는 떨나무에서 부터 길쌈하고 밭갈며,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아랫다움이 그의 운명의 어두움을 갖어다 주리라고는 조금도 몰랐다. 돈많은 점주의 눈독이 단단히 김사녀의 아름다움에 욕심을 내어, 날로날로 빚을 갚으라고 성화가 대단하였다. 그리고 추근추근 추파도 던지곤했다. 점주는 늙었어도 색욕은 대단하여 색광이란 이름까지 있었던 위인이였으니 오죽 하였으랴. 네아비 이메죽고, 네서방이 돌아오길 틀린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조용히 나의 소청만 한번 들어주면, 그 빛둔되지 않은 꾸어간 돈은 다 없는 것으로 할뿐만 아니라, 많은 비단과 백미등을 주겠노라 하였다. 그때마다 김사녀는 매섭게 쏘아붙여 다시는 입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이후 김사녀는 더욱 몸갓임을 단정히 하고, 성심껏 시부모를 섬기었다. 얼마 않이되어 시부가 세상을 떴다. 그후 배전의 성의를 시모에게 기울였다.

어느 눈쌓인 겨울이였다. 그보다 앞서 이풀 산밑에 “불당골”이란 골이 있어 어느때 절인지는 모르나 거의 기울어진 폐사가 있었다. 중도 주지도 떠난 도깨비집같은 절만 앙상이 남어 있었다. 이절의 어느날 가난한 선비 한사람이 와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한 사람인지라 제대로 열어 먹지도 못하는 형편이였다. 그러나 두문불출 밤을 새워가며 글만 읽으니 마을사람들은 소문으로만 알뿐 만나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어쩌다 장념을 구하고자 마을에 한두번 이를적이 있고는 통 출입이 없었으며, 풍모가 “준수”하고 매우 “어진” 인품이였다.

올해도 거의가고 삭풍이 매섭게 내려부는 설한 계절이다. 김사녀가 늙은 홀어머니에게 따뜻이 불을 때어드리고저, 아침을 먹자마자 떨나무를 하려 산으로 갔다.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이고 찬바람이 매섭게 살을 에웠다. 노시모를 따뜻이 되실 수 있다면야 무엇 이정도 추위쯤이야 하고, 마른 나무가지를 주

어 모으며 한결음 한결음 앞으로 정신없이 나아갔다. 그때였다. 바로 눈앞에 원사람이 쓰러져 있지 않겠는가, 김사녀는 깜짝 놀라 뒤달음질쳤다. 얼마간 뒤로 달려오다 문득 생각한 바가 있었다. 이것이 김사녀의 운명을 가름할 줄은 김사녀 스스로도 몰랐다. 하여튼 이 눈쌓인 골짜이에 죽었는지 아직 살어서 있는지도 확인치 않고, 그냥 돌아서 온데서야 어찌 인간의 도리이겠는가. 그는 다시 빨을 되돌려 쓰러진 사람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황급히 체온을 만져 보았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고, 몹시 굶주린 기색이였으며, 쓰러진지 얼마되지 않는듯 하였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이부근에 누구 사람 없어요, 이곳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으니 구해주여야 되겠어요”하고 소리 웨쳤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자기가 외쳤던 소리만이 산에 메아리쳐 울뿐이다. 그는 깊은 산 눈쌓인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아무튼 모를세라 자기가 돌아서면 하나의 죄없는 생명이 다할것이다. 그렇다고 모른체 할 수도 없는 노릇이였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그 무엇이 텅겨지듯 황급히 그가 입고있던 웃옷을 벗어 눈속에 쓰러진 사람의 체온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감싸주었다.

그리고 얼마후 혈기가 돌자 그는 무엇인가 먹여야 했다. 그렇다고 마을까지 달려 내려와서 먹을것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있었다. 그곳에 쓰러진자는 다름아닌 폐사의 머물러 공부하던 사람으로 기한의 못이겨 마을로 먹을것을 구하려 눈길을 내려오다 주림에 지쳐 쓰러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마을로 끌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두고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는 어린 아이가 있었고, 또한 유도가 좋아 언제나 넘쳐 흐르는 상태였다. 그녀는 뒷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다, 우선 사람부터 구하여야 겠다는 생각에 뒷일은 돌볼겨를도 없이 젖가슴을 풀었다. 그리고 팽만된 젖을 스스로 짜서 죽어가든 선비의 입속에 흘려 내렸다.

얼마후 그리 떨어지지 않은 폐사로 사력을 다해 굶주린 선비를 끌어다 놓았다. 그리고 나무침도 먼저 버리고 황급히 마을로 달렸다. 그리고 냇가의 버들가지 한줌을 꺾어들고 시모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며 사죄하였다. 시모는 누구보다 김사녀의 정숙을 잘알고 있는터라, 조금도 책망이나 탓하는 빛이 없이 어서 구하도록 하라고 등을 밀었다. 이에 김사녀는 자세한 뜻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노라 하고, 쟈그릇을 열어 얼마의 쌀을 퍼갖고 폐사로 달렸다. 그리고 미움을 끓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사롭게 한후 황급히 내려와서 시모께 아뢰었다. 시모도 매우 흡족해 하였다. 이로부터 한 이례동안 김사녀의 극진한 돌봄으로 공부하던 선비는 건강이 회복되고, 천만번 죽임에서 자기를

구해 회생시켜준 은혜에 김사녀의 집을 찾아 감사를 표하고, 꼭 은혜는 갚겠노라 하였다. 이때 시모는 선비에게 행방없이 집을 나간 자기자식을 혹 만나거든 부디 타일러 착한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타일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공부하던 선비는 그어느 고향으로 가겠노라고 떠나갔다. 그리고 그 은혜는 천만번 잊지 않겠노라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서는 좋지 못한 풍문이 돌았다. 이 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사람을 통하여 모두의 귀에 들렸다. 물론 아무일도 없는 것이였으나 점주가 김사녀를 탐욕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궁금하던 찰라에 눈덮인 날 토끼 물이를 하던 점꾼의 한 사람이 면발에서 김사녀의 가슴푸는 모습을 보았다 한다 이 말이 점주에게 들렸다. 그리고 점주는 때가운듯 사람을 시켜 이러쿵 저러쿵 허풍을 늘어놓아 이지경의 이론것이다. 김사녀가 조석으로 우물터에 나가니, 마을 아낙네들이 비죽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아무런 허물없고 착하게만 살려하는 자기에게 대한 일인줄로는 조금도 몰랐다.

그러든 그어느 날이다. 밤이 가까워 꿈에도 잊지 못하던 정서방이 마을에 찾어들었다. 그는 몹시 궁색한 나머지 집으로 되돌아 오다, 차마 허송세월 하다 빈주먹으로 집으로 들어 올수는 없었다. 마을어귀 주막집에서 술한잔을 들고 날이 저물기만 기다리던 참이였다. 이때였다. 주막에 몰려들던 점꾼들과 점주의 대화는 “정서방 꽈이나 오래간만일세, 그려”하고 인사말이 오간뒤 술잔이 두 어순배 들자, 여보게 정서방 자네가, 자네가 집을 돌보지 않은 연유로써 집꼴이 형편없이 되었다네, 아아! 글쎄 자네 모친에 대한 팔시가 심하여 아사지경이였고, 자네처는 그어느 너석을 넘봐서 말이 자네처지 이루 형언키 어려운 지경이네 하였다. 정서방은 그때 술이 얼간한 참이였다. 분통이 치밀고 치가 떨려 더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말도 드릴겨를 없이, 반기는 노모와 김사녀앞에 자기처인 김사녀를 대갈질책하기가 급급하였다. 너 이년 죽이겠다. 너 같은 더러운 계집은 차라리 죽여 없애야 한다고 마구 휘둘렀다. 자기모의 사실과 다르다, 김사녀는 너부도 효하고 정숙한 계집이였다하고 만류하는 자기 어머니의 소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김사녀의 머리채를 놔아채고 용동이질이었다. 김사녀는 그동안 당신의 성공만 빌고 바라며 저의 힘껏 노모를 모셨노라 하였으나, “네이년” 이 더러운 계집, 너의 몸을 팔아가며 우리부모 모셔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 더러운 계집, 하고 마구 두들겨 굴신을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정서방은 마침 구실이 좋았다. 그 많은 돈을 낭비, 허송하고 면목이 없었던

차였는데 오히려 자기 계집의 행실 운운하며,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의장을 뒤져 있는것이란 모두 쟁기고 더러운 계집에게 자식은 맡길 수 없다고, 어린 것을 뉘아채 가지고 지향없이 떠나버렸다. 그가 떠나며 어데가서든지 자리가 잡히는대로 어머니를 뵈시려 오겠노라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시모는 노병으로 세상을 뜨고보니 김사녀의 애통함은 극에 이르렀다. 고히 장사모시고 나니 김사녀는 천애무의 탁의 신세가 되었다.

그곳을 떠나려 하였으나 점주의 빚이 태산이였다. 때가 오질 노리던 점주는 이제는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무슨 수로 그많은 돈을 갚겠으며, 또 돈을 갚았다한들 이메 너의 추행을 알고, 더러운 계집이라고 너를 소박하고 떠난 정서방이 다시 너를 찾을리 없을즉, 하고 득의만만하여 날파 탈로 김사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김사녀는 그 반대로 의지가 굳게 다쳐 갔으니, 어느곳 어느땅의 있을지 모르는 정서방이지만 그의 안녕을 빌며, 부지런히 일하여 점주의 빚을 갚고보면 그 언제이고 마음을 들려 다시 찾아오리라, 굳게 마음먹고 더욱 몸갓임을 단정이 하였다.

그러한 세월이 어언 몇해가 흘렀다. 빚도 거의 갚어갈 무렵이였다. 점주는 점점 초조해졌다. 잔뜩 노리고 있던 점주에게는 빚을 다갚고 보면, 김사녀는 제손에 들어오긴 글렀다 생각한 끝에 위제로 유인하여 김사녀를 강제로 육보이려 했다. 위급을 마을에 알리었으나, 마을에서는 점주가 늘어놓은 좋지못한 풍문때문에 김사녀는 이메 점주의 계집이 된지 오래였다 알려져, 누구한 사람 구원을 하려들지 않았다. 김사녀는 그토록 쌓고 쌓아올린 공든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트릴수는 없었다. 펠사의 탈출로 강암에서 풀려나기가 무섭게 원사골의 깊은 뜻을 향하여 달렸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부끄럼없이 살아왔으나, 미천한 계집은 더이상 지탱할 수 없어 가오니 저를 가련하게 생각하시여 거두어 주소서 하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얼마후 김사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시체가 되여 물위에 떴다.

다음날 이곳에 나무하러온 촌로가 발견, 전저내 보니, 저는 세상살이 구차하여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먼저 가오니, 양지바른 언덕에 옷을 입은채로 묻어 주시오, 하는 유서를 지니고 있었다. 촌로는 그의 뜻대로 근처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었다. 그런일이 있은후 몇해가 지나갔다. 이젠 정서방도 나이가 들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보니, 자식 공부도 못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가련한 신세가 되였다. 노모를 뵈시려 오겠다던 그 위인이 이젠 노모도 잊었다. 그로부터 어느날 그는 고향이 그리워졌다. 생각다못한 그는 어느 부자집을 택하여 한탕 하기로 결심하고, 큰 부자로 알려진 어느 기와집

담을 넘었다. 그리고 있는대로 돈을 뒤져 가지고 나오다, 주인집 하인에게 들켰다. 네 이놈하고 벽살이 잡힌채 실컷 얼어맞고 판가에 넘겨졌다. 그때였다. 그집에서 전일 몇번씩이나 도적이 들던 때인지라, 지난날 잊어버렸던 금전까지도 모두 정서방의 소행이라고 했다. 정서방이 아니을시다, 궁한 나머지 도적질은 처음이외다, 하고 주장하였으나 뜻이 통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하육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였다. 그의 자식 하나있어 매일같이 밥을 얄마다 올면서 옥에 넣어주니, 보는자 또한 눈물겨울 지경이였다. 이날도 밤이 깊은 후였다. 고을 수령은 도무지 잡이 오질 않았다. 판아를 한바퀴 돌아봤다. 옥사 부근에서 소동이 어린거리고 있었고, 옥리와 옥신각신 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옥리에게 특우된 제아비를 면접하게 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였다. 옥리가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오라 해도 막무간 하고 간청하는 것이였다. 수령은 옥리를 불러 뉘자식인가 물었다. 옥리왈 정서방의 자식인데 제아비 밥을 구걸하느라고 늦었아오니 부디 넣어 달라는 것이라 하였다. 수령은 기특히 생각했다. 비록 걸인의 자식이라 하나, 죄지은 제아비에 대한 효심이 극진한지라, 감동한바 있어 명일 다시 재실키로 마음을 굳히였다.

밝는 아침 판아뜰앞에 죄인은 끌려 나왔다. 죄인에게 묻노라, 어디사는 누구이며 무슨 일로 도적질을 하여 얼마를 훔쳤는지 소상히 아뢰어라 하였다. 죄인왈 네. 죄인은 廣州고을 아무곳에 사는 정서방으로서 일찍 불효하와 이곳 평산고을까지 와서 죄인의 봄이 되였습니다. 아뢰고 돈을 탐하여 월장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미수에 그쳤을 뿐입니다 하였다. 수령왈 그렇다면 죄인이 방면된다면 어찌하겠는고 하고묻자, 네 더더욱 착한 사람되어 적은 일이나마 이사회에 보답하겠나이다 하였다. 한참후에 돈을 잊었다는 부자집 주인이 나오게되고, 네가 잊은 돈은 얼마인고 하니, 네 세번에 걸쳐 얼마얼마이라 하였다.

이때 수령은 그렇다면 그돈은 내가 갚아 주겠노라 하고. 그많은 돈을 부자놈앞에 던져주고, 네 이놈 이제 네돈을 갚었으니 바른대로 아뢰어라 하였다. 이에 거부놈은 땅위에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죄다 잘못하였노라고 곤두하고 있었다. 이내 죄인 정서방은 뮤인 오라줄이 풀리우고 조용히 수령의 처소로 안내되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아까 조금전까지만 하여도 불호령을 하던 수령이 자리를 흔해 앉히며, 정중히 읍하지 않는가, 정서방은 어찌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하였다. 그리고 두렵기만 하였다. 꼭 죽은 목숨인데 그많은 돈을 내어 자기를 구해주고 고귀한 수령이 친히 자기를 맞아 따듯이 대하여 주지 않는가. 정서방은 정신을 잃은 사람보양 멍하니 당황해 하였다. 이때다 고을수령은 부인을 부르고 무엇인가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자기앞에 한폭의 천이 던져졌다. 그 천에는 성공하시는날 꼭 나의

자식을 구하여 사람되게 타일려 주십시오, 그리고 며느리 김사녀의 정숙함을 찬양하는 뜻이 적혀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손을 깨물어쓴 피맺힌 사연이였다 고을 수령은 나즈막히 정서방에게 말하였다. 내가 전일 깊은 산속 눈속에 굶주려 쓰러졌을때 김사녀의 구원이 아니였던들, 그 어찌 살어 오늘이 있겠는가, 모두 김사녀의 은공이며, 자기가 회생되어 올적에 정서방모친 앞에 나아가지 난일을 자세히 말하자, 나는 자부를 의심치도 않고 또한 잘한일이외다. 그리고 뒤를 내가 후원하였노라 하며, 내자식은 집을 나간후 소식이 없으니 혹어느곳에서든 만나거든 사람되게 타일려 집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이였다. 그 후 고을수령은 급제 입신하고 안팎으로 인심이 후덕하여 따르는 자가 많았다.

자기가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하였던 그의처 김사녀의 은공으로 자기 목숨이 구하여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천만번 감사의 뜻과 아울러 많은 돈과 의복을 내어주며, 자기의 은공을 갚고저 날파 달로 모아두었던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행마를 준비토록 하였다. 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며, 지각있는 사람이냐, 정서방의 두눈에는 고마움과 또한 그토록 미워했던 김사녀의 대한 죄책의 눈물이 주룩흘러 양볼을 적시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송하든 수령의 부부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옛집에 돌아왔다. 벌써 몇해가 지난 후인지라 옛집은 쓰러지고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도 가시고 그의처 김사녀도 죽었으며, 점주도 김사녀가 죽은 다음 양심의 가책으로 가산을 정리 떠난후였으니, 아는자 없었다. 오래만에 출세치는 못하였으나 큰 돈을 쥐어본 정서방은 한번 뽑내며 살어 보겠다던 그앞에 낮익은 촌로가 겨우 살어남아 찾어왔다.

그는 『았다 이사람아 왜 이리 오래만에 왔는가, 자네를 기다리든 자네 모친과 김사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였다네』하면서 김사녀의 죽음을 이야기 하고, 매장된 곳을 일러주었다. 정서방 부자는 삽파 팽이를 들고 무덤앞에 나아갔다. 몇삽 흙을 헤치었다. 이 어찌된 일이냐, 벌써 죽은지 10년이 넘었다던 김사녀는 아직도 살이 썩지않고, 죽은채였다. 한맺인 죽음이 이토록 국에 달해 썩지도 않았다. 정서방은 다시 정중히 염하여 장사지내었다. 그리고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부『모는 꼭하며』하고 측을 읽었다.

타오르는 향훈이 멀리멀리 퍼졌다. 그날 저녁이다. 정서방의 꿈앞에 김사녀가 나타났다. 소첩은 영영 다시 뵈올지 못하는 줄알어 저의 넋이 구천에 못들고 허공에 떠돌다, 이제 낭군의 은혜를 입으니 고히 눈을 감고 가겠노라 하였다 그후 정서방 부자는 착하게 한평생 살다갔다.

이로부터 원통이 죽은 골이라 하여 원사골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3. 공부터의 유래

실촌면 오향리 깊숙히 독바위골이란 골이 있고, 이곳에 높이 10m, 넓이 5간 정도의 석축이 있어, 옛부터 이르기를 공부터라 전하고 있으니, 그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독바위골은 워낙 깊은 산골이고, 또한 나무숲이 우거져서, 낮에도 어두우며 하늘만 겨우 쳐다보이는 독안과 같다하여 독바위골이라 하였다. 이곳에 그 옛날 怒呼하는 한쌍의 大虎가 머리위를 이리뛰고 저리뛰며 그 큰 입을 벌려 한입에라도 삼킬듯 사납게 포호하는 밑에 단정히 앉어 한선비가 글을 읽고 있었다. 크~ 까르르 마치 천둥이나 하듯 천지가 무너질듯한 포호성이 고을 가득히 메아리저 다시 까르르 천지를 울린다. 그렇지만 조그만 움막안에 그선비 눈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세하나 흐트림없이 중국 경서인 주역대문을 죽죽외워가니 그소리 또한 청정하여 虎聲의 화답하듯 결결히 고을 가득히 메아리 지고 있다. 노기띤 성난 쌍호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당장 덤벼들듯 눈을 부라리며 연신 발톱으로 흙을 긁어 뿌려대고 있다. 그러기를 며칠밤 몇일낮이다. 선비 또한 물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뜬눈으로 날을 새었으니 그 피곤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눈을 팔 겨를이 없다 이러기를 꼭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였다. 한쌍의 호랑이는 지독한놈 네놈의 끈기앞에 우리가 쪼노라 하듯이 크게 부르짖고 주위를 한바퀴 돌고난후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이다. 마을에는 촌노들이 모여 무엇인가 숙론하고 있었다. 촌노들은 아~글쎄 그토록 만류함도 뿌리치고 독바위골로 들어가 글을 읽겠노라는 선비는 틀림없이 호랑이 밥이되어 호신이 되였을걸세.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호성이 몇날몇일을 두고 국성을 부리더니, 이제 잠잠한 것을 보니 이미 죽은지 오래일걸세, 옛부터 이르기를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워도 그 머리는 꼭 남긴다하니 우리 모두 가서 유골이나 찾어 거두어줌세, 그것이 어떻겠노하자 촌노들을 그 좋은 일이외다. 그러나 살어있기는 별씨 글났고 보면 하고, 모두 낫과 팽이를 들고 독바위골로 향하였다.

한참만에 공부터 어귀에 다달은 촌노들은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은 호랑이가 맵돌다간 발자욱으로 온통 가득한데 그밑에서 꼭 죽은 줄만 알았던 선비가 이남박에 아침쌀을 쟁고 있지 않은가, 촌노들은 어안이벙벙하였다. 이때 선비는 괴이하다는 듯이 일어나 『아침일찍 웬일들이십니까』하였다 이때 촌노들을 『아이구 살어 있었구려』 우리들은 선비께서 꼭 호환을 당하신줄 알고 유골이라도 거두어 드리려고 이렇게 왔노라하자, 선비 걸결 웃으며

아～ 그러시였구먼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버젓이 살어있지 않습니까, 호환이라니요 하자 촌노들왈 고맙소 고맙소, 그러나 『다음엘랑 바로 마을로 내려오시오. 언제 다시 호랑이가 올지 모르니』 하자 선비는 어제 있었든 일을 촌노에게 이야기하고 정신만 차리면 저를 해하지 않는데. 호랑인들 사람을 해치기나 하겠읍니까 하였다. 촌노들왈 해치지 않는게 무엇입니까, 제 새끼를 죽였는데 호랑인들 가만 있겠는가 하였다.

몇일 전이다. 강원도 포수 두어명이 찾어 들었다. 이곳으로 사냥을 하러 왔노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산중에 명산이 있어, 이따금 큰 짐승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었으니, 다른 곳에나 가보라 하였다. 그러나 포수들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하는 말을 듣지 않고 산중에 들어가 적은 호랑이 새끼 한마리를 잡어 가지고 득의만만이 간 일이 있었다. 물론 마을 사람들과 말다툼도 있었으나 그냥 돌아가고 난뒤였다.

그로부터 어데서 왔는지 모르나 한쌍의 호랑이가 산중을 누비며 울부짖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이 산에 들기를 꺼릴 정도였고, 혹 나무를 하려 갈양이면 떼지어 가서 한짐씩하여 오곤 하였다. 이말을 들은 선비는 아～ 그려셨군요. 이제까지 조용하던 산중에 호랑이가 설치든것을 보니, 무슨 변이 있었구나 짐작이 갔읍니다. 그러나 산에 짐승이 살지 않고서야 어찌 산이라 하겠읍니까, 더욱이 이런 장산에 큰짐승이 산다는것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요 하고 태연하니 촌노들왈 이인이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어찌! 어찌하고 혀를 차며, 그럼 몸조심 하시오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로부터다 그토록 난폭하던 호랑이는 이 선비앞에 아주 순한 집개모양 무릎을 뚫었다.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움막앞에서 놀다가곤 하였다. 이토록 어질고 여유만만한 선비가 자기 새끼를 해쳤을리 없다고 호랑이는 느낀듯 하였다. 그로부터 선비가 마을에 내려갔다 저물게 돌아오는 길이면, 으레 호랑이가 마중나와 앞장서곤 하였다 한다.

그로부터 얼마뒤 그 선비는 장원급제하여 고을수령이 되여 선정을 많이 베풀었고, 그 호랑이들을 잊지못해 몇해 한번씩 옛 공부하던 독바위풀을 찾어 밤을 샐녁이면 호랑이 또한 찾어들어 해후하였다 전하며, 지금도 영산에 해마다 제지내였고 또한 공부터도 남아있다 전한다.

4. 송열전의 유래

『쾅! 우르릉…』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에 인조대왕은 기겁을 하도록 놀랐다. 『제, 아무도 없느냐?』 『예이－, 소신 대령하였사옵니다』 수어사 이서가 들어와서 부복을 하였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오?』 창백한 얼굴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인조대왕이 이서에게 물었다. 『잠깐 고정하고 계시옵소서, 소신이 곧 알아보고 오겠사옵니다』 인조는 급히 말하고 나가는 이서를 쟁황히 붙잡으며 지팡이를 더듬어 찾았다. 『이장군! 파인의 옆에서 떠나지 마오. 무슨 변이 일어나면 파인을 데리고 가도록 하오』 『고정하옵소서 상감마마, 소신은 마마에게 생명을 바친 몸이온데 어디를 간다 하옵십니까, 잠시 나가서 동정을 살펴보겠사옵니다』 『파인도 같이 나가 보려오』 『아니되옵니다, 발의 상처가 도지실까 염려되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수척한 왕을 부축하여 자리에 앉힌 뒤 이서는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냐?』 지나가던 군졸이 대답을 했다. 『호병이 화약을 터뜨려서 성벽을 부수었다 합니다』 『무엇이! 어느 쪽이냐?』 크게 놀란 이서가 한달 음에 황급히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가보니. 화약 연기가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겁을 집어먹고 사람들이 어디로들 숨었는지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여봐라! 군사들은 빨리 나와서 내말을 따르도록 하여라! 숨는 놈은 한칼에 쳐없앨 것이다』 악을 쓰듯 소리치며 이서는 서슬이 시퍼런 칼을 빼 들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몸을 숨기고 있던 군사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빨리 가서 가마니 백장을 구하고, 그 가마니에 모래를 담아 오너라』 이 삼백명의 군졸이 모이자 이서는 비장한 사람에게 이러한 명을 내렸다. 『나는 상감마마를 뵈옵고 올터이니까 그동안 모래가마니를 쌓아서 허물어진 성벽을 막아 놓아라. 그대로 쌓으면 쉽게 무너질 것이니 물을 부어서 열려 놓도록 하라. 만일에 지체를 하거나, 일을 잘 처리 못하면 큰벌을 내리리라!』 하고서 상감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무슨 일이요, 이장군!』 『오랑캐 놈들이 화약으로 성벽을 허물어 놓았사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막도록 이르고 왔사오니 걱정 마옵소서』 『이대로 있어도 괜찮겠소?』 『소인이 살아있는 한 아무 걱정 마옵소서』 그말에 적이 안심이 된다는 듯이 인조는 비스듬히 누웠다. 한밤중에 어두운 길을 더듬어 이곳으로 피신해 오다가 말이 헛발을 디디고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진 인조는 발을 다친것이다. 겨울철이라 쉽게 낫지를 않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발이 아프곤 했다.

임금의 편전에서 물러나온 이서 장군은 다시 성벽을 쌓고 있는 현장으로 가 보았다. 많은 군사들이 땀을 흘리며 모래 가마니를 메고 와서 성벽을 쌓고 있었다. 한 줄을 쌓고서 그위에 물을 붓는 것이다. 살을 에일 것처럼 추운 날씨라서 물을 붓기가 무섭게 얼어 붙어서 제대로 튼튼한 성벽이 되었다.

수어사 이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감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크게 기대했다. 나이가 들자 무장이 되었으나 학문에도 박식하여 자연 그 덕성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인 인조는 같이 밤첨을 도모한 일등 공신이라 하여 특별히 총애하고 수어사라는 벼슬을 내려 한시도 당신결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는 처지였다.

성벽을 다시 쌓은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었다. 항상 불안과 초조로 날을 보내는 인조가 꿈을 꾸었는데 군왕 한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다, 내가 꼭 필요해서 그러니 너의 신하 한사람만 보내도록 하여라』 인조는 창망히 엎드려서 물었다. 『어느 신하를 드리오리까?』 『그것은 내가 골라서 데리고 갈것이니,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것이다』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잠이 깬 인조가 너무도 괴이쩍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승지가 들어왔다. 『상감마다, 망국하옵신 말씀이옵니다. 어제밤에 갑자기 이서 장군이 별세하였다 하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는 말이라 곧이 들리질 않아 인조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이서가 죽었다니?』 『수어사 이서 장군이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허,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서가 죽다니 ...』 깊은 탄식과 통곡을 하던 임금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그후 며칠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상심한 임금은 사당을 짓게 하고, 온조왕묘와 이서 장군을 배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서 성밖으로 나가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남한산성 서장대 아래에 있는 사당으로 정조대왕때에 숭열전이라고 명명하였다.

5. 현절사의 내역

『여보게! 우리 마지막으로 상감마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가세』『그러세』『이제 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봄, 그거 옳은 말일세』 말을 마친, 세 사람은 오던 길을 돌아서 산성을 향해 큰 절을 했다. 『상감마마! 만수무강 하옵소서』 땅 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 세 사람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다. 얼굴이며 온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이었으나 웃은 갈기갈기 찢기어서 몸만을 겨우 가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발은 각기 뱃줄로 묶여져 있었다. 『그만 일어서지 못할까!』 소리치는 청나라 호송 군사의 고함소리에 서서히 몸을 일으킨 세 사람. 그들 주위에 늘어서 있는 십여 명의 청나라 군사중의 대장인듯한 자가 가죽 회초리를 휘둘렀다.

『가만히 좀 있으시오』 윤학사의 이 말에 그래도 좀 안됐던지 호송대장은 올렸던 팔을 내렸다. 『이왕에 지체된 김에 담배나 한대 피웁시다. 마지막 청이니 한대씩 주구려』 하면서 길옆 바위에 털썩 주저앉은 오학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길가에 주저 앉았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성루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많은 사람들이 성루에서 이쪽을 바라보았고, 또는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청나라의 침략으로 이 강산이 피로 물들고 무수한 전란의 참화와 함께 임금이 청나라에 항복을 한 병자호란이 끝난 때의 일이다.

적군을 피해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있던 인조대왕은 한달여를 산성에서 적군에게 항전을 하였으나,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적장 앞에 나가 임금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였던 것이다. 산성을 점령한 청나라 군사들은 제일 먼저 성균관 학사 세 사람을 잡아서 자기들의 수도인 심양으로 압송하게 된 것이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아닌 홍익한, 윤집, 오달제였다. 이들로 말하자면 청나라와의 화친을 반대하고 차라리 오랑캐에게 굴복을 하느니 보다는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데 뭉쳐서 오랑캐와 싸우다가 패하면 모두 깨끗이 죽어 버리자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여보게 달체! 우리가 당장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마세』『암, 물론이지! 최명길 같은 놈처럼 더러운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의로운 일이겠나』『옳은 말일세. 죽음을 초개같이 생각하면 능히 만고에 의리를 지킬 수 있으며, 죽음이 두려워서 의리를 버리는 인간은 별례만도 못한 일생일세』『한가지 애석한 것은 정온대감처럼 배를 갈라 순절하지 못하고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것이 부끄럽네』『자, 이젠 일어나라! 갈길이 바쁘다』

호송대장이 채찍을 휘드르며 소리치자 세 사람은 북북히 일어나서 견기 시작했다. 그들이 걸을 때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뮤이어 바틀거렸다. 산천초목도 그들의 죽음의 행진이 슬픈듯이 눈발을 뿌려주었다. 만리 이국으로 잡혀가는 그들의 행렬을 전송하려고 길 양변엔 백성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고 강을 건네주는 사공들도 담배를 불여주며 위로를 했다.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기 까지 어디를 가나 이러한 정경이었다. 이 민족의 슬픔과 고난을 대신해서 잡혀가는 그들의 고통이 어찌 남의 일 같을소냐?

거의 두달이 걸려서 그들은 청나라 수도 심양에 당도하였다. 궁궐안 어느 감옥에 갇혀진 그들의 몸풀은 그동안 먼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극도의 피로에 지쳐 있었고, 손과 발은 밧줄의 마찰로 인해서 벗겨지다 못해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다. 각기 따로따로 갇혀서 소나 말먹이 같은 식사로 목숨을 이어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군졸들이 세 사람을 끌어냈다. 거의 죽음에 이르른 그들이었다. 상처에 독이 올라 걸을수가 없었는데, 개 꽈지 끌리듯이 풀려가서 어느 한곳에 이르러 끓어 앉혔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사방을 휘둘러 보니, 그곳은 휘황찬란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살피고 있을때,

『그대들은 머리를 들고 나를 보아라!』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군사들이 시위한 가운데 금판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다. 『짐이 이 나라의 천자이니라! 내 너희들을 당장에 능지처참을 할것이나, 그대들의 의기를 가상히 여겨 말하노니 명심하도록 하라!』『……』『짐이 특별히 생각하여 그대들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이니, 이제부터 그대들은 나의 신하가 되도록 하라』이 말에 흥익한이 큰 소리로 말했다. 『황공한 말씀이오이다. 하오나 불충이 군이라 하였사온데 어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사오리까?』『그게 무슨 말인고? 너희 나라 임금도 전에는 명나라에 조공을 바쳐왔으나, 이제부터는 점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으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임금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청나라의 힘에 못이겨서 조공을 바치기는 하나, 사람의 마음까지는 빼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청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할 때가 있을 것인즉, 하루 빨리 조선국에서 군사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윤집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꾸하자 청나라 황제는 얼굴에 경련을 일으켰다. 『저런 무엄한 놈들이 있나! 네 이놈들을 당장 도륙을 낼것이로 되 짐이 참는 것이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처신하도록 하라』 청나라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놈들을 하옥시켜라!』 당장 목을 베고 싶으면서도 그들의 끽끗한 기상에 감복되어 어떻게든지 회유를 시켜서 자기의 신하

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예전부터 조선나라엔 출중한 인물들이 많았다고 들어온 황제는 과연 그 말이 틀림없는 말이로구나 생각하고 내심 감복해 마지않았다.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소인 대령하였사옵니다』『너 이제 가서 조선국에서 잡아온 놈들을 데려다가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전의를 시켜서 상처를 치료해 주도록 하라!』『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그 후에 계집과 술을 주어서 흠헉 취하게 만든 다음 그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라!』『틀림없이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해서 삼학사는 그날부터 청나라 대궐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절개는 송죽보다 더 강인한 것이었다. 하루는 세 사람이 모였다 『여보게들 청나라 놈들은 우리가 살찐 다음에 잡아 먹으려는 모양일세』『어제는 계집들이 와서 갖은 아양을 다떠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았네』『꾀놈들이 괜한 혀지랄들을 하고 있네만 어림도 없는 노릇이지—』『여하간 죽을때 죽더라도 청나라 황제에게 다시 한번 말해서 군사들을 회군시켜 달라고 말해봄세』『그러세』 이와같이 날을 보내고 있으려니 세월은 어느덧 초여름에 접어 들고 있었다. 청나라 군사에게 뮤여서 고향을 떠나 올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반년이 가까이 지난 것이다. 대륙의 땅에 여름이 되니 남쪽에서 불어오는 향토 흙먼지와 초목을 태울 것같이 이글거리는 태양에 세 사람은 말할수 없이 고향이 그리워졌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식들, 또 부모생각, 나라생각으로 매일같이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다. 어쩌다 잠들면 고향꿈만 꾸다가 잠이 깨어 그대로 밤을 지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궁중 내시의 전갈을 받고 황제앞에 불리워 갔다. 『그동안 별고없이 지냈는가?』『무탈하게 지내고 있사옵니다』『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기쁘도다. 이제는 아주 청나라 사람이 되도록 힘써 보라』『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백번을 거듭 말씀드려도 소생들은 조선임금의 신하들임을 통축하소서』『그대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나? 짐을 노하게 하면 죽음밖에 돌아갈것이 없을 것이로다』『금수같이 살 바에야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나이다』『음... 고양지 고』『다시 한번 아뢰옵니다만 한시바삐 조선국에 있는 군사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조선의 백성들은 청나라 군사들로 인해서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부녀자들은 수없이 겪탈을 당하고 있사옵니다. 청나라는 대국이오니 아량을 베푸시어 어진 백성인 조선백성을 더이상 괴롭히지를 마시고 바라옵니다』 홍익한의 절절한 읍소를 듣고 있던 황제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 그대들의 청을 들어줄 터이니 그대들도 짐의 말을 들으라!』『.....』『그대들은 이곳에 온 후로 한번도 짐에게 황제폐하라는 말을 안쓰고

있다. 이제부터 짐에게 폐하라고 부른다면 그대들의 소청을 잘 생각해 보겠노라』『대단히 황송하오나 우리 임금에게만 그러한 말을 쓰는 것으로 소생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소생들의 임금이 따로이 계시온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대들의 임금이 이제 내 신하가 되었도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나의 신하의 신하가 아닌가?』『무릇 임금이라 함은 덕망과 자비로서 신하를 감복시켜야 충신이 될 수 있는 것이오며, 어진 군주라 할 수 있사온데 조선국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약탈과 살육을 자행해서 조선국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함은 황제가 취할 행위가 아닌줄로 아옵니다』 오달제의 말이 끝나자, 동시에 청나라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쳤다.『저런 발칙한 놈들이 있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에 끌어내어 목을 치도록 하라!』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들을 끌어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겁을내는 기색이 없이 끌려 나가는 삼학사.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을 내린 청나라 황제는 힘없이 자리에 앉으며 깊이 탄식을 했다. <허-. 과연 충신들이 이로구나! 조선국 임금은 정말로 복많은 자로다. 내게도 저러한 충신이 몇명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

『여봐라! 지금 곧 영을 내려 조선국에 가있는 도총병마대장 마보대에게 즉시 회군하라는 전교를 내려라!』 한편 성밖 처형장에 도착한 삼학사 일행은 의관을 정제한 다음 남쪽에 있는 고향산천을 향하여 재배를 하고 조용히 칼을 받았다. 아, 슬픈 일이로다. 만고에 빛나는 충의를 안고 이 역만리에서 죽어간 그들의 넋은 영원히 이 땅을 지키리니-.

청나라 황제의 용중한 대접과 환대에도 유혹되지 않고, 굳고 굳은 절개를 지키어 백의민족의 기상을 살렸으니, 그 충성과 절개는 영원히 빛나리라. 그들을 처형한 청나라 황제는 그들의 충의에 감복되어 그들이 죽어간 형장에 십한산두라는 네글자를 조각한 비석을 세워 주었다.

그후 숙종대왕이 즉위하자 남한산성에 사당을 짓고, 삼학사의 제사를 지냈다. 또한 남한산성이 청나라 군사에게 함락되었을때 배를 가르고 자결한 정온과 강화에서 자폭한 김상현도 이곳에 모신후 현절사라는 액자를 내리고, 길이 길이 후손에게 충의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6. 주필암의 내력

꾀꼬리가 우짖고 제비가 날기 시작한 어느 늦은 봄철이었다. 결음을 서서히 옮기는 정조대왕의 이마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결에 따르고 있는 신하들도 좀 더운듯 하지만 오랫만에 성밖을 나와 산수에 파묻히니 고단한 출을 몰랐다. 개울을 따라 오솔길을 접어서 올라가던 정조대왕은 결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곡 양편에 있는 산기슭에는 진달래가 만발했다. 『허..., 과연 절경이로구나!』 주위의 경치에 정신을 잃은듯 멍하니 서있는 임금 앞으로 유수 김종수가 아뢰는 것이다. 『육체가 피로하실가 저어되오니 잠시 쉬어가십이 어떠하옵신지요』 『그래야겠소. 앉아 철만한 자리가 어디 있겠소?』 『저기 물 가운데 있는 바위가 시원하겠사오니 어수를 물을 담그시고 잠시 앉아 쉬심이 좋은 출로 아뢰옵니다. 황송하오나 소신의 등에 업히셔서 물을 건너시도록 하시옵소서』 『아니오, 오랜만에 맨발로 넛물속에 들어가 보는 것도 매우 상쾌한 일인 것이오』 하고는 정조는 신발과 버선을 벗은 다음 넛물속으로 첨벙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자 도승지 한사람이 황급히 말을 했다. 상감마마, 감기에 드실가 염려되옵니다』 『괜찮소, 경들도 나처럼 해보면 심신이 유쾌하리니 사양말고 들어오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왕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면서 물 가운데 있는 편편한 바위위에 올라섰다. 곧 이어서 신하들도 제각기 신을 벗고 넛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임금의 앞인것을 잠시 잊어버린듯 제각기 환호와 비명을 지르며 떠드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였다. 이 모양을 미소를 띠고 바라보면, 왕은 『허!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로다. 무릉도원에 들어 있는 신선들이 되었으니, 어찌 술 한잔이 없어서야 되겠소. 빨리 주안상을 마련토록 하오』 『즉시 거행해 올리겠사옵니다』 대답을 마친 유수는 달음박질을 해서 산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정조와 조정 신하들은 좋은 날을 가려서 남한산성을 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대왕이 즉위한 뒤 나라형편은 안팎이 다 평안하고 농사도 풍년을 거듭하니, 위로는 임금으로 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자연 학문이 크게 발달하여 여러 사람의 문장가들이 나왔으며, 천문, 지리, 의술등도 발달하였다. 그래도 정사에 밝은 임금은 평소에 군사를 비롯한 모든 나라안의 사정들을 직접 확인하고 방비하기 위하여 때때로 도성을 떠나서 행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주안상이 올라왔다. 왕과 신하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출을 마시며

시조를 읊으기도 했다. 이때 임금이 유심히 바라보는 곳이 있어서, 신하들의 눈길도 자연 그대로 쏠리게 되었다. 저 전너편 언덕위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뿐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의아하게 생각한 신하 한사람이 말을 했다. 『상감마마! 무엇을 그리 보시옵니까?』 『경들은 저기 서 있는 소나무가 보이지 않소?』 『?』 『저 소나무의 모습이 꽉 우산같이 생겼구먼!』 그제서야 왕의 말을 알아들은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았다. 왕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들며 『저 소나무가 하도 절묘하여 파인이 벼슬을 내릴 것이니, 나무기둥 위에다가 옥관자 를 붙여 주도록 하오』 하니 좌중이 함빡 웃음을 머금었다. 『성은이 망국 하옵니다. 상감마마』 왕과 신하들은 해가 지도록 유쾌하게 놀다가 환궁을 했다.

그때 왕과 신하가 놀던 자리에 유수 김종수가 기해주필지소라고 글씨를 새겨 넣었으니 그해가 기해년이었던 것이다. 또한 언덕위에 서 있는 소나무를 그 후부터 세상 사람들은 대부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산성 동문밖에 서 있는 소나무다.

7. 장경사에 얹힌 전설

금단선사는 고개위 길옆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서 고개 아래로 뻗혀 있는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애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탑스럽게 자라있는 허연 턱수염을 연방 쓰다듬으며 누군가를 몹시 기다리는 품이다. 그려저 력 한식경이나 지났을가 해서 풀을 헤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올라오는 소년이 보였다.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노인이 얼굴엔 기쁨과 안도감이 일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좀 오너라. 목 빠지겠구나』 『오래 기다리셨지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벌써 올것인데 어머니께서 오늘은 더 아프세요. 아침에 끓여드린 미음도 안잘呓고 눈만 감고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혼이 났는데요』 열 서넛쯤 돼보이는 소년의 얼굴엔 눈물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따라서 시무룩해진 금단선사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시간도 늦었는데 바둑은 그만 둘까요』 『네가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아니에요 할아버지,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럼 엄마 병환만 나오시면 나하고 매일 바둑을 둘 수 있겠느냐?』 『그럼요. 하루종일이라도 둘 수 있는데……』 매일 해가 중천에 뜨면 이 소년과 만나서 바둑 두는것을 큰 낙으로 삼고있던 금단선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는듯 했다. 잠시후 무슨 말을 할듯 하다가 심각한 눈초리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동네 의원이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의 병은 대추하고 꽃감이 있어야 한데요 그 두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약을 달여 먹으면 병을 낫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려고 내일 길을 떠나려고해요. 『길을 떠난다고? 이 여름철에 대추하고 꽃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북쪽으로 멀리 가다보면 가을이 일찍 찾아온 곳이 있을 거예요. 빨리 약을 구해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잖아요. 밤이 돼도 쉬지않고 갔다 오겠어요. 그때까지 할아버지는 심심하셔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노인과 소년은 잠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금단선사로 말할 것 같으면 도인인 것이다. 속세를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이 소년과는 혈육 이상으로 정이 들어왔다. 자기가 도인인줄 모르는 이 소년의 고난을 바라볼때 금단선사는 번뇌에 빠질만큼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능력을 말하자면 능히 이 소년의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소년이 자기의 정체를 알고 난다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순진무구한 심성을 잃어 버리고 본능에 가

까운 인간 속성으로 자기를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속세와 인연을 끊은 자기로서는 이 소년과도 헤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 금단선사는 한동안 깊은 시름에 잠기었다.

『얘야, 네가 길을 떠나도 약을 구하자면 한달이 걸릴지 두달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니 차라리 내가 갔다 오마』『네! 할아버지가요? 몸도 약하실 터 인데 어떻게 먼 길을 가신단 말이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집에 와 계시면 좋겠어요』『아니다. 얘야 네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한다면 어떡하겠니 … 그리고 내가 갔다오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정말 갔다 오실 수 있으세요?』『그렇고 말고 오늘부터 이렛날 후에 해가 네머리 짧대기에 오거든 이곳에 와서 날 기다려라』『그렇게 빨리 갔다 오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저는 매일 올라와 보겠어요』『아니다 틀림없이 그날을 잊지말고 오려무나. 자 그럼 난 가봐야겠다』『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어요』『자, 그럼 난 이쪽으로 내려 갈테니 너도 가보아라』『할아버지 몸조심하세요』『으흐흑 …』 너무나 감동해서 호느끼는 소년을 뒤로하고 표연히 사라지는 금단선사.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의 병은 날로 침중해 갔다. 흘어머니를 단신으로 봉양해 가는 소년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일자이 여삼추로 노인파의 약속 날짜를 기다렸다. 그러나 금단선사가 떠나간지 닷새가 되던 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는 운명하고 말았다. 한편 금단선사는 축지법을 써서 묘향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대추와 곶감을 구해 가지고, 약속된 날짜에 돌아왔으나 웬일인지 소년이 보이지 않았다. 온종일을 기다려도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매일 고개의 바위에 서서 기다렸으나 소년은 종내 소식이 없었다.

소년을 잊지 못한 금단선사는 바위 옆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장경사인 것이다.

멀리 푸른 산위에 감도는 구름은 인간의 시름도 모르는듯 유연하게 흘러가고 종일토록 들리는 새소리, 물소리는 선경을 방불하게 하나, 그 옛날 금단선사가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 소년은 인간 번뇌를 가득 안고 어디로 갔는지 — .

8 . 공민봉의 유래

『여봐라! 아직도 개경에선 소식이 없느냐?』『황공하오나 난적들을 아직도 물리치지 못하였는 줄로 아뢰오』『어허! 고양지고. 파인이 박복하여 쓸만한 장수가 없으니, 이 나라의 사적이 어찌될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공민왕은 서서히 성루를 내려와서 왕비가 있는 침전으로 향했다.

때는 고려 말엽. 노국공주의 사랑에 빠져 정사를 거의 잊다시피한 공민왕이었다. 점차 나라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간신들이 판을 치는데다가 신돈이라는 괴승이 공민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정사를 좌우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전국 각지에서 도적의 무리가 일어나고 북쪽의 오랑캐들은 변경을 자주 침범해서 살육과 노략질을 일삼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홍건적이라는 도적의 무리가 평안도 지방에서 크게 일어나자, 탐관오리들에게 고혈을 빨리던 백성들이 크게 호응하여 이제는 고려의 서울 개경을 넘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일과 방종에 빠져 국방을 소홀이 한 조정에서는 홍건적들의 난을 막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다. 중전의 침소에 이르른 공민왕은 또 한번 어두운 낮빛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왕비가 며칠째 몸져 누워있기 때 문인 것이다. 『중전! 몸에 차도는 있으시오?』 누워 있는 왕비의 머리맡에 앉으며 손을 들어 왕비의 이마를 짚어 보는 것이다. 『상감마마! 너무 염려 마옵소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민왕은 얼른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가만 누워 있으시오!』 중전이 빨리 완쾌해야만 환궁을 할것이니 어서 완쾌를 하시오』 『찬바람이 몸에 해로우시니, 그만 돌아가 주무시옵소서』 『아니오, 나는 오늘밤 중전의 곁에서 밤을 보낼가 하오』 『아니옵니다. 상감마마는 만백성의 어버이시오이다.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팬찮소. 파인은 중전과 함께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소』 『도적들이 궁궐을 불태우지나 않았는지 염려되옵니다』 『불태웠으면 다시 지으면 될것이 아니겠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도록 하시오』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밤은 점점 깊어 가건만, 중전의 처소에선 가물거리는 등불이 깨질 줄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국사인 신돈이 들어와서 왕에게 아뢰는 것이다. 『상감마마, 경상병사가 군사를 이끌고 임진강을 넘어서 홍건적들을 무찌르는 중이라 하옵니다』 『오!』 장한 일인이고, 경상병사에게 대장군의 시호를 내리고, 개경을 탈환하는 즉시 봉화를 올려서 파인에게 알리라고 이르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오나 왕후마마의 환후는 어떠하옵신지요?』 『경들이 염려해 주어 그만 하오만 어서 환궁을 해야 완쾌될 것 같소』 『환도를 하옵신다 해도 난적

들의 소행으로 대궐이 모두 불에 타버렸사오니 대궐을 다시 짓는 동안은 그대로 이곳에 머므로 심이 가할 줄로 아뢰옵니다』『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을 하시오. 왕후의 병환은 대궐을 떠나있기 때문에 난 병이거늘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오?』『황공하여이다』『어찌됐든 과인과 충전은 한시 바삐 개경으로 돌아갈 것이니, 난적들을 물리치는 즉시 봉화를 올리도록 단단히 일러두시오』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처럼 왕후는 개경으로 돌아갈 날을 봅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공민왕은 홍전적들을 물리쳤다는 봉화가 오르는 것을 고대하며 산성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개경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산성 북문이 열리며 말을 탄 군사 하나가 금히 달려왔다. 『상감마마께 아룁니다 한강을 건너간 경상병사가 홍전적들에게 대패하여 목숨을 잃었다 하옵니다』 『뭣이라고? 그 많은 군사가 싸움에 패했단 말이냐?』 『지금 난적들은 임진강을 건너서 이곳으로 몰밀듯 쳐들어온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약한 공민왕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듯했다. 곁에 있던 신돈이 얼른 왕을 부축했다. 『상감마마! 기운을 차리십시오』 『국사!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진정하옵소서. 잠시 남쪽으로 피신하옵시면 소신이 국난을 타개하여 환궁하옵시도록 하겠사옵니다』 『국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한단 말이오?』 『왕후마마의 고향이신 노국에 사신을 보내어 원병을 청해볼가 하옵니다. 황송하오나 잠시 동안만 남쪽으로 풍진하시도록 하옵소서』 이리하여 공민왕은 병든 왕후를 데리고 남한산성을 나와서 정처없는 피난길을 남쪽으로 떠났다. 그후 일년 반만에 노국군사의 도움으로 홍전족의 난을 평정한 뒤 공민왕은 개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남한산성으로 피난 나와 있을 때 개경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봉화가 오를 때만을 지켜보던 언덕이 있었으니, 그곳을 공민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9. 별 봉과 한 봉

남한산성 성문밖 언덕에 한 사나이가 앉아서 지도를 그리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까짓 산성의 지도를 무엇에 쓰겠다고 그려오라 하는가? 조선땅에는 이것 말고도 큰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 사나이는 보잘것 없는 산성이라고 대강대강 지도를 그려 가지고 산을 내려갔다. 그는 북쪽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고 있었는데, 이 사나이는 청나라의 용끌대로서 조선을 침범하기 전에 정세를 염탐하기 위해 비밀히 조선으로 들어온 염탐군인 것이다

얼마후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도착한 용끌대는 황제에게, 『…그리하옵고 조선 군사로 말하면 그 수효가 지극히 미미하오며 오합지졸에 불과한 형편이옵니다. 다만 서경(평양)에 있는 임경업 장군만 적당히 피해 간다면 열흘안에 조선왕을 사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아뢰옵니다』하고 조선의 정세를 보고했다. 『남한산성의 지도는 그려 가지고 왔는가?』『예, 이것이옵니다.』 용끌대는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황제에게 바쳤다. 지도를 들여다보던 황제는 용끌대에게 물었다. 『강은 산성의 어느 편에 있는가?』『예, 서쪽에 있사옵니다.』『도성인 한양은 어느편인가?』『그것도 산성의 서편에 있는 줄 아뢰옵니다. 폐하』 용끌대의 말을 듣고 청나라의 황제의 얼굴은 잠자기 노기가 충천했다. 『네 이놈! 당장 목을 벨것이로되 다시 한번 명을 내리니 집의 말을 명심해 듣고 어김없이 거행하렷다! 네말대로 한다면 남한산성의 지세가 응당 남북이 길고 서북이 짧을 것인데, 너는 어찌해서 반대로 그려 왔느냐? 다시 한번 나가서 산성의 나무 한 그루, 돌 한 조각이라도 빠지지 말고 그려 오도록 하라! 만일에 영을 어기는 날에는 당장 목을 베리라』 청나라 황제는 지도를 갈기갈기 췄어 버리는 것이다. 얼굴이 백짓장같이 변한 용끌대는 머리를 더욱 조아렸다. 『황공하옵니다, 황제폐하. 지금 곧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황제의 엄명에 제차 조선으로 나온 용끌대는 남한산성을 위시하여 주변의 성벽과 바위 계곡을 언덕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그렸다. 다시 심양으로 돌아간 용끌대는 황제에게 복명을 했다. 두번째 그려온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 황제는 얼굴에 회색이 만연했다. 『장군은 가까이 오라!』 용끌대는 멀리는 마음으로 황제 가까이 다가섰다. 황제는 지도에 그려져 있는 한지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바위가 틀림없이 성밖에 있느냐?』 『그 바위를 별 바위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성밖에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폐하』 『어! 수고하였도다. 우리가 조선에 쳐들어 가면, 조선임금이 틀림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위의 정기가 서려 있어서 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산성을 점령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어늘 다행이 바위가 성밖에 있으니 가는 즉시 이 바위부터 깨뜨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청나라 황제는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침범해 왔다. 청나라 군사는 이르는 곳마다 싸움에 이기어 단시일에 한양을 점령하고 왕이 피신한 남한산성에 다다랐다. 경기가 서려 있다는 그 바위가 과연 성밖에 있는지라, 화약으로 바위를 깨뜨리자 놀라운 벼성이 일고 연기가 오랫동안 하늘로 뻗치는 것이었다.

그후 한달이 지나서 조선임금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다. 후일에 조정에서 벌 바위에 대한 사연을 알고, 다시 벌바위 밖에 성을 쌓았다. 또한 청나라 군사가 산성안을 바라 보던 언덕을 한봉이라고 불렀는데, 모두 산성의 요해처가 되므로 그 밖에다 겹성을 쌓았다.

산성 북문밖에 뾰족히 솟아있는 것이 벌봉이요, 동문 밖에 있는 것이 한봉(汗峰)인 것이다.

10. 恨이 서린 望京台

형과 아우가 마주앉아 팽팽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윤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돌리려느냐!』 『형님이야 말로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시고 저와 함께 낙향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너는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목숨을 걸고 싸운 덕으로 이제 우리 집안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는데, 무엇이 안타까워서 낙향을 한단 말이냐!』 『정 그러시다면 형님이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이대로 시골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이란 어디까지나 시의에 맞추워 살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개국공신록에 네 이름을 넣어서 호조전서라는 벼슬이 내렸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지나간 일들은 이제 다 잊어 버리고 나와 함께 조정에서 일을 보자』 『형님 말대로 하면 부모를 팔아서도 벼슬을 해야 겠군요?』 『네 이놈! 입을 닥치지 못하겠느냐! 방자함이 지나치구나』 두 눈에 쌍심지를 돌구고 형을 바라보던 조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조윤은 고려 말엽의 유신으로서 이성계를 도와 이조혁명을 도모한 공신의 한 사람인 조준의 아우였다. 일찌기 형인 조준이 반정에 가담하려는 것을 눈물로 말렸으나 형은 듣지 안했던 것이다.

그후 이태조가 왕위에 오른 뒤 벼슬을 내렸지만 받지를 않았다. 그리고 서 이름인 윤자는 견자로 고쳤으며 자를 종견이라 스스로 불렀다. <나라를 잃고도 죽지 못함은 개와 같은 것이며, 또한 옛 주인을 잊지 못함은 충실한 개와 같다>는 뜻이라 하였다.

그후에 산속으로 깊숙히 숨어서 멀리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경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통곡을 하며 지냈다. 조윤이 지금의 광주군 연주면에 있는 청계산 봉우리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 지으며 바라 보았다해서 그 봉우리를 망경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후에 이태조가 그의 충절을 높이 여겨 옛번의 예를 갖추고 손수 산으로 그를 찾아 갔으나 태조를 만나서도 절 한번 하지 않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도 태조는 조윤을 가없이 여겨,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조윤은 태조의 그와같은 호의를 물리치고, 어느날 아무도 모르게 도망하여 양주에 있는 송산으로 숨어 버렸다는 것이다.

11. 国清寺 우물에 얹힌 전설

옛날 경기도 광주에 이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던 총각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총기가 등에 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너무나 총기가 크기 때문에 걷지도 못함은 물론 똑바로 누워 있을수도 없어서 고생이 막심했다. 별의 별 약을 다 써 보아도 효험이 없는지라 근심은 날로 더해갔다. 효심이 지극한 이 집은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아버지의 병 간호를 위해서는 있는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아버지 곁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에 신선이 이집에게 나타났다. 『얘야! 내일부터 목욕 제게하고 국청사 절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것이니 그리 알아라』하고, 신선은 훌연히 사라졌다.

잠이 깨 이집이 생각해 보니 예사꿈이 아닌것 같아서, 이튿날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마을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기도를 드린것이 어느덧 백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날도 새벽 친이슬을 맞으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집이 무심히 어느 바위를 바라보니 바위틈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세수도 할겸, 물도 먹을겸 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바위틈에 입을 대고서 물을 마시던 이집이 샘물을 들여다 보니, 금붕어 한마리가 있었다. 하도 신기해서 금붕어가 노는 모양을 한참 들여다 보던 이집은 소중히 금붕어를 잡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잠이 깨 아버지가 목이 하도 말라서 물을 먹고 싶었지만 곤히 자는 아들을 깨우기도 안되었고, 그렇다고 물을 뜨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몸이고 하여, 그저 꾹 참고 있었다. 그러나 더이상 참을 수가 없는지라 아버지는 금붕어가 들어 있는 그릇의 물을 마셔버렸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었다. 등에 난 총기가 확 터지면서 피고름이 콸콸 쏟아지고 시원해 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영겁결에 아들을 깨웠다. 『얘야! 내 등 좀 봐다오. 고름이 흐르는것 같더니 아픈것이 짹 가서 버리는 구나!』 『어떻게 하셨는데 그래요? 아버지』 『저 금붕어가 들어있는 물을 마셨더니 그렇구나』 아버지의 등에 흐르는 고름을 닦으면서 이집은 생각에 잠겼다.

꿈속에 나타났던 신선의 말대로 백일기도를 한 까닭에 금붕어를 잡게 되었고, 그 금붕어를 기른 까닭에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된것이다. 『얘야, 저 그릇에 물이 없으니 우물물이라도 채워 주려무나』 『아참, 그래야 되겠군요』 하고 이집이

부엌으로 나가서 독에 물을 펴다가 그릇에 넣으니 이상하게도 금붕어의 빛깔이 검어지는 것이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집과 그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얘야! 저 금붕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아마도 금붕어가 있던 물이 영협이 있나보다』 『절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샘에서 잡은 거예요』 『그려면 날이 새는대로 그 물을 떠오너라』 오랫만에 희색이 만면해진 아버지와 아들은 밤이 새도록 기쁨을 주고 받았다.

이윽고 동이 터오자 집을 나선 이집은 큰 그릇을 가지고 한달음에 샘으로 달려가서 물을 떠왔다. 곧 붕어가 들어 있는 그릇을 비운 다음, 새로 길어온 물을 채우니 이상하게도 붕어의 빛깔이 다시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과연 그 샘물이 영협이 있는 약수로구나. 어디 내등에 좀 발라봐라』 이집은 샘물을 아버지의 상처에 발랐다. 그러자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어서 원하구나. 어디 한모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이집의 아버지는 병이 완전히 날았다.

그후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널리 퍼지자 각처에서 피부병 환자가 다 몰려 들었다. 이 샘물은 남한산성의 서장대 아래쪽에 있었는데 근처에 국청사라 젖이 있었기 때문에 국청사 우물이라고 불렸다.

12. 설월리의 가마소

옥황상제는 자신의 딸을 지상으로 보냈다. 그 신랑감도 점지해 두고— . 그러나 처녀의 생부모는 이를 어기고 다른 곳으로 혼처를 정했다. 이에 옥황상제는 노여움을 터뜨렸다.

경기도 광주 땅에서 동쪽을 얼마가면 초월면이 있으며, 그 곳에 지월리라는 마을이 있다. 지월리를 이 고장에서는 설월리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에는 깊고 물이 유난히 차고 맑은 가마소 혹은 가마수라고도 부르는 소가 있다. 이가 마소에는 하늘이 정해준 배필을 버리고, 부모가 정해준 곳으로 시집을 가다가 애통하게도 죽어야 했던 한 처녀의 애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오래 된 옛날의 일이었다. 지월리에 초로에 접어든 한 부모가 살고 있었다. 전답과 재산이 많고 하인들도 수명을 부렸으며 부부간의 금줄도 좋아서 온 동리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 했다. 그러나 남부럽잖은 이들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그들에게 아직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는 것이었다. 『여보, 우리가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여러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도 하늘이 내려주신 복인가 하오. 그런데 슬하에 자식이 없으니… .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더 재미있겠오?』 『영감 죄송합니다. 저의 덕이 모자라서 그만… .』 『아아니, 어디 그게 당신 탓이오? 다 우리가 타고 난 복이지… .』 『그래두요… .』 이런 말을 주고 받는 늙은 내외의 얼굴엔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부인은 자식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서 뒷뜰에 단을 모시고,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다 놓고 칠성님께 빌기 시작했다 <칠성님께 비오나니 제발 저희들 부부에게 자식을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 어떤 날은 남편도 같이 나와 치성을 드릴 때도 있었다.

어느날 부인은 꿈을 꾸었다.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한 노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부부의 소원이 간절하고, 또한 정성이 지극하므로 내가 아이를 얻을 방도를 가르쳐 주겠노라. 이 마을을 흐르는 넛물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다리를 놓고 매일 새벽에 그 다리 위에서 치성을 올리도록 해라.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 즉, 장성하여 혼사를 치르게 될 때는 하늘의 뜻을 거역치 말지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로다』 하고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학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꿈을 껬 부인은 하도 이상하고 신기하여 영감에게 꿈 얘기를 했다. 영감은 매우 기뻐하며, 『여보,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알아 주시고 자식을 내려 주실 모양이오 이렇게 기쁠 일이 어디 있겠오?』 하며 부인을 열싸 안았다. 『그렇지요, 영감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야 낸들 어찌 알겠오? 그러나 순리대로 일을 치뤄 나가면 될게 아니겠오?』 이리하여 이들 부부는 그날부터 즉시 사람들을 모아 다리를 놓는 공사에 착수하여 한달이 지난 후에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다. 그리고서 다리가 선 날부터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그 다리위에서 치성을 올리고 기도를 했다. 이러기를 백일째 되던날 부인은 또 태몽을 꾸었다. 부인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다가 졸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창문을 통해 들어 오더니 부인의 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은 깜짝 놀라 잠을 깨었다. 분명한 태몽이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

열달후 부인은 귀여운 딸을 낳았다. 구슬 꿈을 꾸고 얻은 아이라하여 구슬 아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부리는 머슴중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또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집딸과 한날 한 시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머슴 박서방은 주인 영감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할가봐 쉬쉬 했으나, 소문은 막지 못하는 법이라, 결국 주인 영감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영감은 내심 기분이 언짢았다. 하필이면 머슴 너석의 아들과 같은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다니… 그리고 머슴 너석은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딸이라니… 그러나 이것도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타고난 복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주인 영감은 이렇게 체념하고 박서방에게 꼭식 한말을 보냈다. 박서방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골백번 했다.

세월은 흘러서 구슬아기는 정말 구슬처럼 끊게 자랐다. 미모가 뛰어나고 예의법절이 밝았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했다. 늙은 부모도 온갖 정성을 다해 딸을 키웠다. 이젠 백발이 성성한 이 노부모의 집에 화기가 애애하고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한편 박서방네 아들도 잘 자랐다. 미천한 출생이라 잘 가꾸지를 못했지만, 생김새는 훌륭했다. 얼굴은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붉고 밝았으며 체격도 늄름한게 갈색없는 사내 대장부였다. 그러나 그는 이 집 머슴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다.

이제 구슬아기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다. 늙은 내외는 마땅한 사윗감을 고르고 또 골랐다. 혼담이 빗발치듯 들어왔으나 애지중지 기른 귀여운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다. 드디어 마땅한 사윗감을 골라냈다. 그것은 전너마을의 김초시네 아들이었다. 가세는 그리 왕성치 못하지만 총각이 워낙 똑똑하고 인물이 잘 생겨서 근처에서는 주재라고 소문이 난 터였다. 영감네의 지체

는 김초시네 보다 낫지만 재물이 많고, 또 색시의 재색이 출중하여 혼담은 큰 탈 없이 성립되었다. 혼인 날이 하루 앞으로 닥아왔다. 구슬아기는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야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흘러나와 구슬아기의 얼굴을 비추웠다. 구슬아기는 그 빛이 나오는 곳을 쳐다봤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진 틈에서 위엄 있는 말소리가 흘러 나왔다. 『구슬아기야 듣거라!』 『네?』 구슬아기는 놀라며 대답을 했다. 『너는 나 옥황상제의 딸이니라!』 『예? 제가요?』 『그렇다. 그런데 너는 너의 정해진 배필을 두고 어디로 시집을 가려 하느냐?』 『무슨 말씀이시온지 …… 소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대로 따를 뿐이옵니다.』 『아니다. 너의 배필이 될 사람은 김초시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집 머슴, 박서방의 아들 둘쇠이니라!』 『예? 둘쇠라구요?』 갈수록 놀라운 말이었다. 『그렇다. 내가 지금 너의 부모의 정성이 겨우하여 너를 하계로 내려 보낼 때, 너의 배필로서 둘쇠도 박서방의 아낙의 배를 빌려서 함께 하계로 내려보냈다. 그렇거늘 너는 어찌하여 하계의 인간과 혼인을 하려 하느냐!』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 『그 무슨 소리냐? 지금의 혼인을 파괴하고 둘쇠와 혼인을 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와 둘쇠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노라!』 구슬아기는 놀라서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 몸이 땀에 배어 축축했다. 꿈을 꾸 것이다. <그런 일이 ……>

구슬아기의 비명소리에 어머니가 달려왔다. 딸의 꿈 얘기를 들은 늙은 부모는 대경실색을 했다. 십육년 전 구슬아기를 배게 되었을 때 신령님이 하신 말씀을 그간 잊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흐음—.』 『여보, 혼약을 파기하고 옥황상제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십시오. 네?』 『……』 영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후고 영감은 『아니야 안돼. 그전 얘기가 너무 진장해서 꾼 개꿈이야, 개꿈. 세상에 자기집 머슴의 아들과 혼인을 맺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오. 원 머슴녀석하고 혼인을 하다니 상제님도 망령이시지. 자 걱정말고 어서 준비나 해요. 아기야 넌 잠이나 더 자거라!』 영감은 딸에게 다정스럽게 말하고서 호탕하게 웃으며 나아가 버렸다. 어머니와 딸도 영감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혼례는 무사히 치렀다.

그런데 신행 길에서 -. 신부는 신랑을 따라 가마를 타고 신행을 가게 되었다. 달 밝은 밤이었다. 일행이 영감이 구슬아기를 얻기 위해서 세운 다리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였다. 밝은 달이 순식간에 먹구름에 가리워져서 온 누리가 깜깜해지더니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제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일어나 다리위에 일행을 휘말아 갈듯 했다. 일행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떠들기 시작했다. 『이거 원 앞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지』 『어이쿠! 밑이 미끄러워서 한발짝도 발을 빼지 못하겠는걸』 모두들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가마꾼들이 소리를 쳤다. 『어이쿠 가마. 이거 가마가 미끄러지는데 야단났군』 이상한 일이었다. 메고 있는 가마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여보게 거 가마 좀 꼭 불들게.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가마는 신부를 실을 채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첨벙!』 가마는 깊고 차거운 물속으로 갈아앉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은 셋은 듯이 개이고 다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시작 이후로 머슴 들쇠도 보이지를 않았다. 영감 내외를 빼고선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구슬아기가 가마를 타고 빠진 깊은 웅덩이를 가마소 혹은 가마수라 부르게 되었고, 눈내리는 달밤이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설월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3 . 天馬의 유래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천태종의 대군이 이미 서울을 침공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뒤이어 남한산성으로 쳐내려 올 것이라는 소문이 빗발치듯이 다다랐다. 그러자 군신들은 『이 남한산성도 위태롭게 되었사오니 다른 곳으로 파천하심이 좋을까 하나이다』하고 인조에게 말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꼬』 인조는 그만 천지가 깜깜하였다. 『전파 같이 공주로 파천하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아니오이다. 강화가 가장 안전하오이다』 영의정 김류를 비롯하여, 판윤 최명길등의 여러 신하들이 각기 주장을 세우다가 급기야 강화로 파천하기로 정하였다. 『어마를 대령하라』 인조는 일부 장졸들을 남한산성에 남겨 놓고, 군신들을 거느리고 다시 강화도로 향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임금이 탄 어마가 움직이려 하지를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어승마를 어거하는 군졸이 소리를 치며 말 고삐를 잡아 나쳤으나, 어승마는 헹 헹 소리를 지르면서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사태는 잠시를 늦출 수 없이 진박한 때다. 이렇게 싱갱이를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시급히 어승마를 어거해 이끌지 못하느냐!』

『어거하는 자를 바꾸어라!』 신하들이 초조하여 두 발을 구르면서 독촉했으나 어승마는 여전히 소리만 지르고 뒷걸음질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다.

이윽고 채찍으로 어승마에 매질을 했으나 어승마는 전신에 땀을 쭉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을 어찌나』 『어이 할꼬……』 모든 신하들의 수심은 한결 짙어졌다. 말까지 말을 안 들으니, 기막히는 일이었다. 이 때에 서울에서 또 급보가 다다랐다. 『오랑캐 군사가 서울을 도륙하고 남한산성으로 향하여 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진퇴유곡이다. 인조는 말을 끌려고 볍석을 떠는 관속들에게 어명을 내렸다. 『말이 걷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니 말머리를 둘이키라!』 하고 인조가 고삐를 잡아 둘이키자 말이 전파는 딴판으로 날쌔게 뛰어 다시 남한산성의 옥좌를 모신 전각앞에 당도하는 것이다. 이 모양을 본 군신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으며, 결국 강화도로의 파천을 충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 오랑캐 대장은 인조가 강화로 파천할 줄을 눈치채고 청군을 요소에 매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인조는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어승마가 다시 강화도로 가려 하지 않은 것은, 즉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다. 뒤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어승마를 천마라고 일컬으게 되었다는 것이다.

14 . 孝子 우물의 유래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은 인조대왕이 병조호란때 두달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곳이다. 이 남한산성의 북문안에 효자우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다. 그 효자우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산성 북문안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다. 효자의 이름은 정남이라고 하는데 정남의 나이 열두살 때였다. 정남의 아버지가 이름모를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정남의 집은 그의 아버지가 하루 하루 품을 팔아서 사는 가난한 살림이었다. 그런 형편에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눕게 되었으니, 밥을 지을 쌀이 떨어졌다. 어쩌면 죽단 말이니. 내가 짚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병드신 아버지가 짚게 되셨으니 정남은 이렇게 밥을 짚으면서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제 겨우 열두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으로서는 품을 팔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정남은 아버지를 깎기지 않으려고 할 수 없이 쪽박을 들고 나섰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병들어서 그러니 밥 한술만 주십쇼. 아버지의 병만 나오면 제가 일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정남은 쪽박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동냥을 청했다. 애구 가엾어라, 어린 네가 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어린게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기특하기도 하지. 정남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동정을 했다. 정남이 이렇게 동냥을 해다가 병든 아버지를 지성껏 봉양했다. 그러나 무슨 병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다가 약 한첩을 제대로 쓰지 못했으므로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한 사람이 지나 가다가 정남의 아버지의 진맥을 보게 되었다. 얘야, 네 아버지의 병에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다. 그저 큼직한 잉어를 구해다가 꽂 파드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하고 훌쩍 가버렸다. 잉어가 좋다는 말을 들은 정남은 무척 기뻐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병환은 잉어를 고아 드리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서 잉어를 구해다 고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은 이런 말로 아버지를 위로한 후에 잉어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혹시 생선장사라도 만나면 사정을 해서 잉어를 구하리라 생각하고 정남은 생선장사가 있을 만한 곳마다 정처없이 헤매었다. 그러나 때가 마침 겨울철이었다. 천지만물이 모두 풍풍 얼어 붙었고 매서운 바람만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다. 너무도 혹독한 추위로 생선을 잡지 못하고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녔으나 생선장사라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생선장사가 하나도 없으니, 이러다가 잉어를 고아 드리지 못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거다. 잉어만 고아 드리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잉어를 구하지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남은 이렇게 탄식을 했다. 정남이 어느 산 기슭을 지날 때였다. 인가도 없는 산 기슭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정남은 우물옆에 힘없이 털썩 주저 앉았다. 하느님 저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잉어만 구하면 우리 아버지의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잉어 한 마리만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남은 우물 옆 산기슭에 주저 앉아서 하느님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원을 했다. 정남은 사정없이 몰아쳐 오는 추위와 하루 온 종일 걸어다닌 피로로 기진맥진이 되었다. 정남이 기도를 올린 후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우물가를 지나려니까 우물속에 누런 금비늘이 찬란한 잉어 한마리가 있는 것이다. 아니 잉어가! 정남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쳤다. 정남은 두 손으로 잉어를 잡아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잉어가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간신히 건져냈다. 잉어는 아가미를 벌름벌름 거리면서

펄덕펄덕 뛰었다. 아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뜻 않게 잉어를 얻은 정남은 너무나 기뻐서 풍풍 얼어붙은 땅바닥에 끓어 업드려 하느님을 향해 감사를 올렸다.

잉어를 구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정남은 잉어를 솥에 넣고 정성스럽게 고았다. 다음날 아침 정남은 밤이 새도록 정성껏 고은 잉어국을 떠다가 아버지에게 대접했다. 정남이 고아다 준 잉어국을 맛있게 먹은 그의 아버지는 과연 병이 셧은 듯이 나았다.

정남의 아버지가 산 기슭의 우물에서 구해 온 잉어를 끓여 먹은 후 병이 낫다는 소문이 차츰 근처 마을에 퍼졌다. 정남의 효성이 지극해서 하느님이 잉어를 내려 주신거야, 정남은 하늘이 낸 효자야. 암 여부가 있나 그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라 효자 우물이야. 그렇지 그 우물을 잘 보살펴서 후세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보여 주는게 옳지 않겠나. 그렇지 그래, 효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고을의 자랑으로 삼아야 하네.

정남의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의 효성을 칭찬했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이름없던 그 산기슭의 우물을 효자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5 . 七士山의 내력

고려의 사직을 무너뜨린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으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썩어빠진 고려 왕조의 악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정사를 바르게 베풀면 천하가 차츰 자기를 따르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다. 웬일인지 어리석고 무능한 옛 임금을 그리워할 뿐 자기를 따르는 자가 별로 없었다. 특히 고려 왕조의 신하로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행방을 감추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태학사로 있던 열곱 사람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에 있는 어느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산등성이에 올라가 멀리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면서 나날을 지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신하를 보내어 그들을 청했으나, 그들은 응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계는 다시 형조판서를 보냈다. 상감께서 부르시오, 어서 개경으로 가시기 바라오이다. 황공하신 말씀이오나 따를 수 없다고 전하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신 다하오니 받아 들이셔야만 후환이 없을 듯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소이다. 그것은 어쩐 까닭이오? 벼슬이 부족해서 그러시오?

나라를 잃은 우리들인데 들어갈 수 있는 벼슬 자리가 어디 있단 말이오? 대감이나 빨리 돌아가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시오. 그러지 마시고 상감께서 간곡히 여러분을 청하실 때 못이기는 체하고 들어가시오이다. 여러분이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면 그 화가 크게 미칠 것이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들을 이 자리에서 대감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소이까. 그리되면 대감을 돌아가서 후회 상을 받으실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다만 상감의 명을 받고 왔을 따름이오, 상감께서는 여러분을 죽이라고 명을 내리시진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오. 옛날부터 여자가 지아비를 잃으면 정조를 지키는 것이어늘 하물며, 임금의 신하된 자로서 어찌 두 임금을 섬길단 말이오. 차라리 죽는이만 못한 일이오.

한마디씩 말을 하는 태학자들의 각오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리하여 태학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발걸을 돌린 형조판서는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자기를 은근히 애유하면서 고고한 체 떠드는 그들을 당장 죽이고 싶었으나, 그대로 꾹 참고 돌아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개경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원을 찾아갔다. 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고려 왕조를 뒤엎는데 큰 공을 세웠으므로 세도가 자못 당당했다. 무사히 다녀왔사옵니다. 하운데 일곱 명의 태학사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을 자칭 칠사산이라 하옵고 각처에 사람을 보내어서 내통을 하여 역적모의를 하는 중이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환이 두려울 것이오니, 곧 제거하옵심이 가한 줄로 아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그냥 놔 줄 수 없는 일이로다. 형조판서의 모함에 방원은 대노하여 곧 군사를 풀었다. 형조판서는 대궐에 들어가서, 방원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이태조에게 고하고, 군사를 풀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이성계는 깜짝 놀라서 벼락 소리를 질렀다. 곧 군사를 거두어라! 안 오겠다면 그만 둘 일이지 누가 잡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고려의 충신들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민심이 날로 시끄러워져 가는데 그들을 왜 죽인단 말이냐? 황송하옵니다, 상감마마. 그러나 태학사들은 지금 역적모의를 하는 줄로 아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그들은 모두 늙은이들 뿐이고 글만 아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얼 가지고 역적모의를 한단 말인가? 당치도 않은 소리로다! 일언지하에 이성계는 형조판서의 모함을 묵살해 버렸다. 그러나 방원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부왕의 업명으로 군사를 돌리기는 했으나 기회가 있는대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정탐군을 보내어 태학사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게 했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차린 태학사 일곱 사람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두문동으로 들

어갔다. 두문동으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어 그들은 몸에 불을 질러 죽음으로써 숭고한 절개를 지키었다.

그후 이조 속종대왕때 우암 송시열이 칠사산에 와서 학사제를 지내고, 글을 지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일곱명의 태학사들이 숨어 살던 그산을 그들이 자칭한 대로 칠사산이라고 불렀다.

16 . 松岩亭의 伝説

황진이는 마음이 담담했다. 그러니까 꼭 삼년만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 옛날 송도삼절이라 하여 뜻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황진이가 아니라 속세를 탈관한 여승이 되어 하산하는 것이다. 삼년 동안 일구월심으로 불경을 외우며 수도를 해오다가 이제 속세로 흘러가는 시냇물을 따라 금강산을 내려오는 것이다.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프면 그 많은 사랑도 한 가닥 구름처럼 흘려보낸 황진이는 장삼에 짚신을 신고 염주를 들었다. 비록 머리를 깎고 고깔을 썼을망정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황진이는 며칠을 걸어서 어느 산속에 이르렀다. 그 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큰 소나무가 울창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으며 경치가 이를 데없이 절묘했다. 황진이는 경치에 취하며 더욱 바삐 걸어서 언덕길을 올라섰다. 언덕에 올라선 황진이는 문득 발길을 멈췄다. 언덕위 소나무 아래서 여러 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 사오 명과 여자 두어 명이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며 흥겨울게 놀고 있는 중이었다. 모두가 이십 고개를 넘어 선 사람들로서 의관을 정제한 것이 양반집의 한량들 같아 보였다. 그때 한 사나이가 소리를 쳤다. 여보게들! 가만히 좀 있어보게. 왜 그러나? 저기로 보게. 아니 중이 아닌가? 글쎄 좋은 중인데 여승같구먼! 그중의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술잔을 훌쩍 마시며 상을 짹그렸다. 에잇! 재수없게시리 중년이 앞을 지나가다니, 아이 서방님도 스님도 여자 남자 가려서 재수가 있나요 뭐? 술맛 떨어진다.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좋은 수라니? 글쎄 가만히 보고만 있게. 이러는 동안에 고개를 다 올라온 황진이가 그들 앞을 지나려 할 때였다. 여보 스님, 잠깐 내 말좀 듣고 가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무슨 말씀이시온지?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쉬었다 가시구려. 합장을 하고 서 있는 황진이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눈은 호기심에 가득찼다. 고마우신 말씀이나 소승은 사바를 떠난 몸이오라 이대로 물러갈까 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황진이는 발걸음을

읊기려 했다.

이 때 몸이 건장한 한 사나이가 황진이에게로 다가와서 그녀를 번쩍 안아 들고 일행이 앉아 있는 곳으로 왔다. 이에 좌중의 사람들은 와—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전생의 인연이니, 스님도 우리하고 유쾌하게 놀아봅시다, 하하. 불가에 몸을 담고 있는 소승을 어찌 이리도 희롱하십니까? 화를 내지 말고 그 백옥같은 손으로 술 한잔 따라 주시구려, 얘들아! 무엇을 멍하니 있는 거냐? 어서 장구를 쳐라! 땅딸보 같은 사나이가 기생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황진이의 고깔을 벗겨서 절벽 아래로 던지는 것이다. 좌중은 또 한번 웃음판이 벌어졌다. 그러자 기생들은 장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저 계집들보다 스님의 얼굴이 백배 낫소. 머리를 기르고 나와 살면 어떻겠소, 하하… 무엄한 말씀이오, 관세음보살. 술맛 떨어지게 놀지 말고 자 한잔 따르시오. 갖가지 수작들을 부리는 그들의 손에서 더 이상 빠져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황진이는 할 수 없이 술병을 들었다. 잔을 내민 땅딸보 사나이에게 술을 따라 주니, 그는 한숨에 술을 들이키고서 어어 그 술맛 좋다. 스님이 따르는 술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하고 능청을 떨었다.

이윽고 황진이가 입을 떼었다. 이제 소승은 물러갈까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천하의 절색이 가버리면 흥이 깨어질 터인데 될 말이오? 그러면 황진이의 손목을 잡아 끌어 안으려 하자 기생 하나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가운데로 파고 앉았다. 서방님 그만 하세요, 부처님한테 죄 받아요. 네년은 저리 좀 가 있어! 난 이 스님하고 만리장성을 쌓아야겠다. 이때 황진이는 물러 앉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 그대들의 우매함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오. 뭣이? 건방진 중년이! 그대들이 하는 짓은 인간의 오욕이 빚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욕을 채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맷은 업보라는 것은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법을 더럽히려함은 곧 그대들의 내세를 더럽히는 것이니, 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남을 아낄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어조로 황진이는 설법을 계속했다 좌중의 사람들은 말을 잊고서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 중에도 기생 하나는 두 불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소승은 본시 송도에서 살던 황진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어느 때에 깨달음이 있어서 불가에 귀의하였사온데 소승도 사바에 있을 때에 지은 업으로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황진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때

였다. 눈물을 흘리며 황진이의 말을 듣고 있던 기생이 『소녀가 스님의 말을 듣고보니 이제 이 세상을 살기가 부끄러워졌사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하고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남한산성 동문 근처에 있는 송암정에는 달 밝고, 고요한 밤이면 남녀들의 노래소리와 여인의 통곡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17 . 서장대의 매바위

서울 광나루에서 한시간 남짓 차로 나가면 경기도 광주 땅의 남한산이 있다. 이 곳은 전망이 좋기로 유명하여 근래는 관광지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원래 이 곳은 백제의 도읍터로 또 이조 때에는 나라의 피난처로 많은 고적과 전설을 지니고 있다. 옛날에는 이 곳에 동·서·남·북 이렇게 네 군데에 각각 장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장대 하나만이 남아 있을 뿐, 나머지 장대는 그 자취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서장대 앞 넓은 뜰에 매바위라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엔 다음과 같은 슬픈 전설이 얹혀있는 것이다. 이 남한산성의 축성은 이조때에 이루어졌으나, 그 축성계획은 이미 선조때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 축성 목적은 병란이 있을 때 임금의 피난처를 삼기 위함이었다. 역대임금은 병란이 있을 때마다 난리를 피해 강화도로갔고, 또 어떤 때는 정처없이 한양을 떠나서 출한 불안과 불편을 느껴왔는데 이런 불의의 병란에 대비하여 한양에서 가까운 거리에 피난처를 물색하다가 이 광주 땅의 남한산성이 간택된 것이다. 이 곳은 한양에서 거리가 가까울뿐 아니라 또한 지형적으로 요새지로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이 곳에 성을 쌓기로 의논이 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보다가 인조때에 와서야 비로소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당시 광주 유수로 있던 이서에게 명해서 이 남한산성을 쌓게 하였는데, 그 소임을 이인고와 벽암이라는 중에게 위임하였다. 중대한 조정의 소임을 맡은 이 두 중은 각기 공사를 둘로 나누어 하기로 의논을 했다. 그리하여 이인고는 남쪽의 축성을 맡고 벽암은 북쪽을 맡아 가지고 곧 착수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북쪽의 축성공사를 맡은 벽암은 착착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즐거운 비명을 올려야 했음에 반하여 남쪽 부분의 축성공사를 맡은 이인고는 별로 진첩을 보지 못했다. 그 까닭인즉 이인고는 원체 마음이 끔고 청렴하여 이서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는 나라의 큰 공사를

맡은 이상 둘 하나라도 소홀히 다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날마다 공사장에 나가 직접 일꾼들을 감독하고 격려하여 둘 하나 하나 쌓는데, 정성을 다 들었다. 이렇듯 세심하고 견고한 공사를 지휘하자니 자연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은 정한 이치일뿐 아니라, 나라에서 내린 공사비 마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유재산까지 털어 공사비에 충당했다. 그래도 워낙 큰 공사이므로 돈이 부족했고, 그로인해 축성공사는 자꾸만 지연 되었다. 이인고의 근심은 이만 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참 큰 일이로다. 중대한 나라의 일을 맡은 내가 이제와서 되는대로 일할 수도 없는 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 그는 이런 탄식과 굳은 결의를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북쪽의 공사를 맡은 벽암은 어떠 했는가. 그는 이인고와는 반대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어 기일안에 축성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남아서 그것을 나라에 환납하게 되었으니, 자연 이인고에 대해 이려쿵 저려쿵 좋지 않은 여론이 따르게 되었다. 인고는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봐. 그렇기에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냐? 또는 아니야, 그는 원래 주색을 즐기는 사람으로 공사비를 횡령하여 슬타령만 하였다니 공사가 늦어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어. 이렇듯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선 험구가 쉴새 없이 흘러 나왔다. 그러나 이인고는 그런 낭설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저 꾸준히 정성을 들여 일을 해나갔다. 남의 험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점점 이인고에게 불리한 말이 조작되어 나왔다. 본래 야심이 많고 마음씨가 읊흉한 벽암은 이 기회를 약삭빠르게 이용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을 뒤에서 자꾸만 인고의 무능함과 공사비를 주색 즐기는데 낭비한다는 뜬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 말이 관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나라의 명을 받은 이서의 입장은 대단히 난처해 졌다. 누구 보다도 신임하던 인고의 공사가 늦어질뿐 아니라 온갖 좋지 않은 소리가 귀에 쉴새없이 들려오니 차츰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광주 유수에게 이인고는 축성공사에는 별로 힘을 쓰지 않고 나라에서 내린 공사비로 날마다 주색에 빠져 있다니, 광주 유수는 그 까닭을 밝히어 책하라는 엄명이 내렸다. 명을 받은 이서는 크게 노하여 곧 인고를 불러 들이게 했다. 공사장에서 일꾼들을 격려하고 감독하던 이인고는 아무죄도 없이 애매하게 끌려와 이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를 보자 이서는 화가 치밀어 이놈 들거라. 내 너를 신임하여 나라의 대사를 맡겼거늘 어찌하여 너는 신의 를 저버리고 공사에 태만하였는고? 하고 꾸짖었다. 제가 게으름을 편 것이 아

니오, 너무나 신중한 공사를 말겼기에 흙 한 삼, 둘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 공사의 진첩이 늦어진 것이옵니다. 그는 사실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서의 귀에 그 해명이 통할 리 없었다. 모두 변명같이 들렸다. 그리하여 끝내 자기를 속이려는 심사가 폐심하여 너는 조금도 개천의 정이 없는 놈이로다. 나라의 중대한 공사를 지연시키고 더군다나 공금을 횡령하여 주색에 낭비를 하였으니, 그 죄를 다스리노라 하고, 참수형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이인고의 억울한 행형은 서장대 위에서 행해지게 되었는데 그는 애매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인고는 마지막 순간 눈물을 흘리며 국법에 의해 죽기는 하오나 너무나 원통합니다. 나의 무고한 죽음을 하늘은 알고 있은즉 죽은 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어서 목을 치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담담하게 참형을 받았다. 칼 날이 번쩍 빛을 내더니, 드디어 그의 목이 땅에 텅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시혈이 낭자한 그의 목에서 매 한 마리가 나오더니 푸르르 날아 이인고의 시체를 몇번이나 싸고 돌더니, 뜰 앞 바위에 가 앉았다가 어디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이 뜻밖의 광경에 모두 놀라며 매가 앉았던 바위로 가보니 거기에는 매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인데? 인고는 억울하게 죽었어.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걸세. 그 곳 형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지껄이며 돌아갔다. 관가에서는 이인고가 죽은 뒤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괴이하게 여겨, 그때서야 공사 현장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벽암이 말아 쌓은 성은 한눈에도 거칠고 허술했으나 인고가 분담해 쌓은 성은 한곳도 빈틈이 없이 견고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인고가 축성함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성을 견고히 쌓느라고 시일이 늦어진 것을 알아낸 것이다. 관가에서는 자기의 경솔한 처사를 후회하며 이인고의 애매한 죽음을 통탄하여 많은 돈을 내려 청량당이라는 사당을 서장대 옆에 짓고 그 원혼을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 뒤로 서장대* 뜰에 서 있는 바위를 매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도 서장대 넓은 뜰에는 그 바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인고의 원통한 죽음을 하소연 하는듯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그리고 벽암이 쌓았다는 북쪽 부분은 지금 성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없이 되었으나, 이인고가 정성들여 쌓은 성은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 그의 충직한 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인고의 부인 송씨 또한 남편에 못지 않은 충렬한 부인으로 인고

가 성을 쌓는데 돈이 부족하여 고심하는 것을 보다 못해,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금을 하여 축성공사비에 보탬을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그리하여 각지로 돌아 다니며, 많은 돈을 걷어 가지고 그 돈을 배에 실고서 뚝섬 상류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거기서 한 친지를 만나 남편이 비명에 간 비보를 듣게 되었다. 남편의 심정을 잘 아는 송씨는 원통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을 슬퍼하며 침식을 전폐하고 통곡하다가 끝내 강물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다고 한다.

18 . 광주의 낙화암

병자호란때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남한산성밖에 진을 치고 있었다. 산성 밖에 있는 언덕에 진을 치고 있자, 그 근처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보호를 요청하므로 부녀자들만을 군사들이 호위하게 되었다 노도처럼 밀려온 오랑캐들은 가는 곳마다 살육과 노략질 부녀자들에 대한 겁탈에 혈안이 되고 있던때라 부녀자들만을 한 곳에 모아 보호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적군은 대병력을 몰아 쳐들어왔다. 좌우 병사는 전군에 명을 내려 양군은 서로 어울려서 한참 격전을 벌였다. 우병사 민영이 부하들에게 소리를 쳤다. 『아녀자들을 산성안으로 피신시켜라!』 『안됩니다.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뒷산 제일 높은 곳으로 대피 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얼마후에 보니 처음에는 어느 쪽이 우세한지 분간을 할 수 없었는데, 차츰 아군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승전의 기색을 알게 된 적군은 더욱 더 사나워졌다. 미쳐서 날뛰는 맹수들처럼 우리편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대들었다. 그러자 경상 우병사가 부하 군졸들에게 소리소리 호통을 쳤다. 『사직의 존망이 걸려 있는 싸움이다! 물러가는 자는 한 칼에 빌 것이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러나 일단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은 자꾸 밀리기만 했다. 이때 좌병사 허완은 단신으로 말을 몰아 성난 사자처럼 장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누비면서 순식간에 적병을 수없이 절러 쓰러뜨렸다. 쫓겨가던 군사들도 주춤 돌아서서 다시 힘을 얻어 싸우기 시작했다. 무수한 화살이 날으로 장검이 번득이는 속을 총황무진으로 달리며 싸우던 허완 장군은 마침내 집중하는 화살을 온몸에 받고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대세는 또 다시 바뀌어 전세는 걸 잡을 수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허완 장군은 명장답게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으나 수하에 있는 수천 군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서 우왕좌왕 뒷

걸음을 치며 밀려오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여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잔잔이 비명만을 지르고 있었다.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지자, 산 아래까지 도달한 적병들은 산 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제각기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한 여자가 나서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싸움은 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녀자들은 이대로 오랑캐 놈들에게 불잡혀서 더러운 굴욕을 당하느니보다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온몸이 오랑캐 놈들의 손과 발에 더럽혀지다가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백제 시대의 삼천 궁녀들처럼 깨끗하게 죽음을 택합시다!』 말을 마치고는 산 뒷쪽에 있는 벼랑으로 가서 몸을 던져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른 여인들은 잠시 멍하고 있었으나 곧 이어서 모두 뛰어가 몸을 던졌으니 겨레의 원한을 품은 채 장렬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백 명의 꽃같은 여인들이 절개를 지키어 이 민족의 고결한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본 우병사 민영 이하 전 장졸들은 이를 잘며 다시 적병들과 용감하게 싸웠으나 워낙 중파부적이라, 얼마 후 모두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에 가면 쌍령이라는 곳에 부녀자들이 몸을 던진 바위가 있는데 그 곳엔 이러한 내력이 서려 있는 것이다.

후에 나라에서 사당을 짓고 원혼을 제사 지냈다고 한다.

19. 남한산성의 청계당

조씨부인은 이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치장을 곱게한 뒤 하녀를 불렀다. 복녀야! 오늘 조반은 정성들여 지어서 올려야 한다. 왜요, 마님! 언제는 제가 정성을 안들었나요……. 글쎄, 그래도 오늘부터는 더 성심껏 찬을 만들란 말이야. 웬지 오늘따라 조씨부인은 기분이 매우 좋은 표정이었다. 잠시후 기침을 하며 일어난 김진사를 쳐다보는 시선도 유별나게 다정스럽고 은근하다. 얼마후 아침상을 차리고 앉은 김진사와 조씨부인은 잣 결혼한 사람들처럼 수줍음과 다정한 태도로 시선을 나눈다. 반주를 올릴까요? 한잔 따르구료 한 잔 마시면 피곤이 싹 풀릴 터이니까. 몸이 많이 축 가셨겠어요. 나이 먹은 양반이라 몸을 조심 하셔야지, 호호……. 허허 … 오늤탓 당신이 십년은 젊어진것 같소. 정말이세요? 그리고 참 새벽녘에 잠간 잠이 들었을때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말씀드려 볼까요? 기이한 꿈이라니 무슨 꿈을 꾸었소? 글쎄 어떤 종이 들어와서 불쑥 거울을 내밀더니 이 거울을 항상 잘 닦아서 지나라고 이르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 여보! 그게 바로 태몽 꿈이라는 거요! 여보, 이제 우리도 늙으막에 자식을 하나 얻는가 보오.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는 김진사는 덥썩 부인 조씨를 끌어 안았다. 기실 이들 부부는 결혼한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항상 괴로움으로 날을 보내다가 이제 태몽꿈을 꾸게 되니, 얼마나 기쁜일이겠는가. 여보 마누라, 내일부터 후원에서 꼭 아들을 점지해 주시라고 치성을 드리도록 하오. 네, 정성껏 백일기도를 올리겠어요.

그로부터 열달만에 과연 조씨 부인은 육동자를 하나 낳았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찼다. 이 아이가 바로 이름은 각성이요, 성은 삼산김씨인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총명하고 기운도 세어서 그의 나이 네살이 되매, 천자문을 폐었고 밖에 나가서는 동네 조무라기들을 모아 성을 쌓고 싸움놀이에 열중하는데 대장노릇은 항상 혼자 도맡아 했다. 그런데 나이 열두살때의 일이었다. 그토록 몸이 튼튼하던 김도령이 하루는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놀란 김진사 내외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러다 진맥을 보았으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 김진사 내외는 거의 환장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의 머리맡에서 한숨과 울음으로 날을 보내 것이 거의 한달이 가까웠다. 그러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얼굴에 사색이 돌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듯했다. 이때 홀연 염불소리와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종이 대문앞에 와서 불공을 한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 주인 어른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오만, 대사는 어찌 오셨습니까? 본시 소승은 시주승이오나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고 주인장액의 도령님을 모시려 왔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남루한 차림의 노승이 하는 말을 들은 김진사는 대뜸 노기를 띠고 소리를 쳤다. 아니 내 아들을 왜 데려간단 말이오? 가만있자! 이제 보니 너는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온 염라대왕의 사자로구나! 이놈 썩 물러나지 못할가! 고정하시오, 주인장. 그런게 아니오라 주인장의 아드님은 부처님께서 점지 해주신 분인데, 지금 잡귀에 시달리고 있으니 절에 데려다가 불공을 드리도록 하라는 분부를 부처님이 소승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였사옵니다. 관세음보살. 아까부터 대문밖의 소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부인 조씨가 맨발로뛰쳐나와 두 손을 합장하며 말을 했다. 아이구 대사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 주세요. 목숨만 살려 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안에 들어와서 김도령의 창백한 얼굴을 저으기 바라보던, 노승은 김진사에게 주인어른은 제 말을 명심해서 들어 주십시오. 액의 도령은 보아하니 출가를 해야만 생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상인데 불가에 귀의 시킴이 어찌 하옵신지요? 『?……』 아이 여보! 목숨만 전져 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왜 대답을 안하세요. 옆에 있던 조씨부인이 안타까운듯 남편에게 말을 했다.

그러나 대를 이어야만 할 의아들이요, 모든 보람을 걸고 길려 왔는데, 어떻게 보낸단 말인가 김진사는 한참동안을 비통한 심정에 빠져 있었다. 대사의 말씀을 죄으면 틀림없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도령은 부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사님은 어느 절에 계신 누구시오니까? 나무아미타불—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사오나 액의 도령이 불제자가 돼서 장성하였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허허…… 부모 자식지간에 생이별을 해야 한다니 이 무슨 팔자란 말이오… 그리하여 노승의 등에 업혀서 강원도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있는 암자로 온 김도령은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졌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노승은 그에게 글공부와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낮에는 금강산의 기암 골짜기를 누비며 창, 칼쓰기, 활쏘기등 독특한 고승의 비법을 배우게 되어 원래 타고난 건장한 체력은 날로 무술이 일취월장 했다. 또한 밤이면 가물거리는 등불아래 고매한 학문을 배워 그의 총명한 머리는 대하 같은 학문을 터득했다. 사바세계를 떠나 선경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고승과 도령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나 마찬가지였다.

세월은 흘러 십년. 도령의 나이 스물 두살이 되었다. 어느 날 김도령을 불러 앉힌 호호백발의 노승은 자기가 지어준 김도령의 호를 부르며 얘, 벽암아! 네가 나를 따라서 이 산에 들어온지가 어언 십년이 된다만 나는 별로 너를 가르친 것이 없구나. 이제 너는 완전한 불제자가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하산하여 억조창생을 구하는데 힘쓰도록 해라. 어인 말씀이옵니까? 스승님. 지금 저 사바세계에는 너를 낳은 부모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는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스승님, 아니옵니다. 저는 이대로 스승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허허,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느냐? 조그만 정에 끌려서 대사를 그르치려고 하니 아무래도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것 같구나.

용서하옵소서. 아무 말 말고 그대로 하산해라. 불문에 공수래 공수거라 하였느니라.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스승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오나 수시로 스승님을 찾아 뵈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다, 나도 이곳에서 떠날 것이니 나를 찾을 생각은 아예 말도록 해라.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네가 잡을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만수무강 하옵소서. 오너 잘 가거라.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오는 청년 벽암은 자꾸 뒤를 돌아봤다. 실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청년 벽암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의 옛집을 찾으니, 그의 집이 있던 자리엔 집터만이 남고 폐허가 돼 있는 것이다. 한참을 찾아봐도 역시 자기 집은 없는 것이다. 이에 놀란 벽암이 마을 사람을 불들고 물어 보니, 기막힌 소식이었다.

그 옛날 화평스럽던 김진사의 집은 아들이 떠나간 후, 흡사 초상집 같이 되어 버리고 김진사 두 내외는 식음을قطع고 자리에 누운 뒤, 몇년 만에 내외가 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안고 잠초만이 무성한 부모의 묘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 자식인 자기로 인해서 타고난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부모를 생각하고, 벽암은 크나 큰 자책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루종일 부모의 묘앞에서 복받치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은 것이다. 그런데 꿈에 자기를 가르치고 길러준 고승이 나타났다. 벽암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인 것이다. 너로 하여금 사사로운 집안에 얹매이지 말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을 극락세계로 모셔간 것이다. 슬픔을 잊고, 이제 곧 한양으로 가거라. 머지않아 이 나라는 오랑캐의

침략으로 국운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한양에 당도하면 네가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춘엄한 얼굴로 말을 마친 노승은 훌연히 사라졌다. 곧 잠이 깨 벽암은 꿈인지 생시인지지를 분간 못하고 사방을 한참 두리번 거렸다. 이윽고 꿈이었음을 깨닫자, 다시 부모의 묘에 재배를 하고 한양쪽으로 서서히 발을 옮겼다.

광해군이 임금으로 있던 어느 봄철이었다. 무파를 시험치는 과거장엔 왕을 위시해서 만조 백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전국 팔도에서 무술에 자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나 서울에 올라와서 과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칼을 잘 쓰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힘이 항우 같은 사람등 누구나 한 가지씩 무술에 능한 사람들인지를 서로 장원에 급제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지금은 오전인지라 활쏘기 시합이 한참이었다.

군사 하나가 호명을 하면 나와서 화살 다섯개를 쏘는 것이다. 김각성 나오시오! 군졸이 소리치자 건장한 젊은이가 나왔는데 머리는 중대머리요, 옷은 남루한 수도승 차림이었다. 그를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뜻마땅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호기심으로 차있었다. 군졸이 통명스레 물으면서 화살을 내주었다. 스님도 활을 쏠줄 아시오? 『……』 북북부답으로 활에 시위를 먹여, 오백 보 앞에 있는 파녁을 겨누었다. 군졸의 신호와 함께 활을 떠난 화살은 딱 하는 소리를 내면서 파녁에 정통으로 꽂히었다. 으음? 중녀석이 보기와는 다르구먼. 군졸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가만들 있게. 어떻게 운이 좋아 맞은게지. 중놈이 별 수 있겠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번 딱소리가 들리며 적중했다. 세번째, 네번째, 화살 다섯개를 모조리 과녁에 적중시킨 젊은 중인 벽암은 결국 활쏘기 대회에서 일등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장원은 아니었다. 오후부터 거행되는 검술시합에 서도 또 한번 싸워야만 장원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윽고 한나절이 지나자 각조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네 사람이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비록 목검이라고 하지만 단단한 참나무라 잘못 맞았다가는 몸이 크게 상하는 것이다. 네 사람이 두쌍이 돼서 각각 싸우는데 장대편이 손을 들때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다. 흐르는 땀을 셋을 겨를도 없이 최후의 결승전에 맞붙은 사나이들, 두 사람은 모두 체격이 건장했으나 한 사람은 바로 청년 벽암이요, 또 한 사람은 괴상한 차림을 한 거한이었다. 머리는 봉두 난발을 했고, 몸은 텔가죽으로 가렸다. 짐승의 텔같이 자란 수염속으로 반짝이는 그의 눈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이들의 광경을 바라보는 왕과 모든 관중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

이고 긴장되어 있었다. 쥐죽은 듯 고요한 순간, 이윽고 정이 울리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로의 헛점을 노려가며 한동안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아가다가 획하는 소리와 함께 짐승처럼 생긴 사나이가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재빨리 몸을 피한 벽암 청년 그러자 연거피 공격해오는 사나이 한동안 벽암은 궁지에 빠지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몸을 가다듬은 벽암 청년은 상대방의 허를 노리고 사력을 다해 목검을 휘둘렀다. 순간 만만찮은 적수는 얼른 몸을 피하면서 목검으로 맞 받았다. 그러자 딱하는 소리와 함께 괴상한 사나이의 목검이 부러지고 말았다. 얼른 몸을 뒤로 빼며 놀란 표정이 괴상한 사나이의 얼굴에 흘렀다. 이때야말로 벽암 청년에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벽암은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말을 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칼을 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감독관은 감탄하며 상대편 사나이에게 다른 목검을 내 주었다. 목검을 받아쥔 사나이는 잠시 목검을 흔들다가 그것을 개치고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나는 진짜 칼로 싸우고 싶소. 진검을 주시오.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오. 그냥 싸우시오! 이때 왕이 감독관을 불러서 물었다. 왜 무술시합이 중단되었는가? 예, 저 텔웃을 입은 사나이가 진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오며 진검을 내달라 하옵니다. 그래?…… 그럼 두 사람에게 진검을 내주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원래 광해군은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보는 절묘한 무술시합에 넋을 잃고 있는 것이다.

잠시후, 진검을 들고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의 표정엔 살기가 감돌았다. 과거를 보는 시합이 아니고 원수끼리의 대결같이 느껴졌다. 곧 이어서 두 사람의 칼이 부딪치면서 불이 일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땀도 흐르지 않고, 오직 차거운 살기만이 감돌 뿐이었다. 다시 부딪는 칼과 칼, 이렇게 해서 이십여 합을 싸우다가 텔가죽을 입은 험상궂은 사나이의 칼이 벽암청년의 허리를 향해서 후려쳤다. 그 순간 몸을 뒤로 뺀 벽암 청년이 칼을 맞받아 치자, 상대편 사나이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엉거주춤 물러서서 멍청한 얼굴로 벽암청년을 바라봤다. 그러나 벽암은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서 칼을 겨누었다. 그러자 험상궂은 사나이의 얼굴엔 갑자기 공포가 어리면서 몸은 사시나무 떨듯 하다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비호같이 빠른 걸음으로 군중속으로 뛰어든 사나이는 금새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러한 광경을 한참 넘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던 왕 이하 모든 관중들은 갑자기 정신이 난 듯이 손뼉을 치며 환호를 하기 시작했다. 지화자소리와 함께 풍악이 울리고 사방이 환성소리에 떠나갈 듯했다.

이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왕은 친히 무술시합장 안으로 들어와서 벽암청

년앞에 이르렀다. 벽암 청년은 무릎을 끊고 부복했다.

어, 가특한지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고? 본명은 김각성이라 하옵니다. 내 평생에 그대같은 장군을 처음 보는도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여봐라! 어서 이 김각성장군과 함께 환궁하도록 하렷다.

이리하여 무과에 장원급제한 벽암청년은 대궐로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장군 김각성을 팔도도총설에 명하노라. 무명 청년으로서는 파격적인 벼슬을 제수 받았다. 그로부터 벽암은 대궐에서 지냈으나 별로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임금인 광해가 국사를 그르치자, 벽암은 보다 못해 여러번 간언을 했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지금 북방의 오랑캐 족속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읍니다. 안으로 백성을 부강케 하고, 밖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진력하시기 바라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인데, 경은 어찌해서 민심을 소란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옵니다. 지금 오랑캐들은 만주를 통일해서 청나라를 세우고, 연일 군사력을 기르고 있는 중인 줄 아옵니다. 듣기 싫소! 그대는 쓸데없는 말로 더 이상 짐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오. 이러하니 벽암은 기가막힐 따름이었다. 더구나 왕은 나약한 문신들과 악랄한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당파싸움과 옥사를 일으키는데만 정신을 쓰고 매일매일을 주색으로 세월을 보내니 딱 한 일이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충신들을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는 간신배들의 등쌀에 더 이상 대궐에 있기가 싫어져 벽암은 임금에게 벼슬을 내놓고 대궐을 떠났다. 대궐에서 나온 벽암은 삽발을 하고 장삼을 구해입은 뒤, 그 옛날 자기가 자라던 금강산의 암자를 찾아서 떠났다. 그는 동매에도 잊지 못하는 자기의 스승과 함께 지내면서 후일을 기약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갈때 가졌던 사명과 용지를 제대로 펴 보지도 못하고 다시 입산을 해야하는 자신이 서글프고 부끄럽기도 했다.

며칠만에 금강산에 당도한 벽암은 스승이 살고있을 암자를 찾아 갔으나, 옛날에 자라던 암자는 보이질 않았다. 벽암은 탄식을 했다. 그러면 스승님은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해가 서산에 기울고 밤이 지샐 때까지 바위에 걸터 앉아서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니 부모생각, 스승생각에 가슴이 에이는것 같았다. 이튿날 일찍 산열매로 배를 채우고 나무를 해다가 움막을 지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불경을 외우고 기암절벽을 뛰어 넘으며 몸과 무술을 더욱 연마하면서 지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는데 나라의 운명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청나라에서

는 많은 첨자들을 보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중이 되어버린 벽암대사가 어느날 암자옆에 있는 바위에 누워서 혼곤히 낮잠을 출기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났다. 벽암아! 너는 어찌해서 내 뜻을 모르느냐? 너는 빨리 세상에 내려가서 중생들을 구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하라. 얼마 있으면 이 땅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나라와 사직을 구하도록 성부터 쌓도록 하라. 이래서 황급히 부복해 옆드린 벽암대사는 간곡히 부처님께 빌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내 나라, 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임금은 우매하나 양같이 어질어서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참화에서 벗어 나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사바세계에서 백팔번뇌는 피할 수 없는것, 네가 할일이나 열심히 하도록 하라. 이에 벽암이 무슨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자 부처님은 어느새 사라졌다. 소스라치게 잠에서 깬 벽암대사가 그 길로 산을 내려가보니 몇년 사이에 임금이 광해에서 인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길로 대궐로 들어가 왕을 찾아 뵙고 간곡한 어조로 아뢰었다. 미구에 북쪽에서 오랑캐의 무리가 쳐들어 올 것이니, 팔도에 성곽을 튼튼히 하옵소서. 고맙소, 그렇다면 대사에게 벼슬을 내릴테니 대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해주구요. 성은이 망국하옵니다. 하오나 소승은 백의로서 종군하도록 통촉해 주옵소서. 경의 뜻이 정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구요. 황공하옵니다.

이리하여 벽암대사는 광주의 남한산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튼튼히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청나라가 쳐들어 와서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여 진을 치고 있었으나 적군들은 한달이 넘도록 성을 깨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벽암대사는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적병과 싸웠다. 한번은 적군과 부평벌에서 싸움이 불었을 때였다. 오색의 기치와 창검아래 산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는 만여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 우리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사기를 잃고 있었다. 우리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의병들이므로 장비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벽암대사는 홀로 말을 타고, 산아래로 내려가서 소리를 쳤다. 내가 조선의 팔도도총섭 벽암이다! 너희도 대장이 나와서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이때 적진에서 장군 한 사람이 군졸 하나를 데리고 천천히 나오는데 아무리 보아도 싸움을 하려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았다. 적당한 거리에 멈춰서서 이편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적장은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장군의 본명을 말해 보시오! 원수끼리 만나서 본명은 알아 무엇하자는 말이오. 어서 나와서 내칼을 받으오. 장군의 본명이 혹시 김각성이 아니시오? 그렇소만, 왜 묻는 거요? 하! 내 눈이 틀림없구나……

장군은 옛날에 과거장에서 칼을 잊고 도망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시오? 그 래서 어쨌단 말이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내 이름은 용골대라 하오. 그 때는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려 왔다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자고 과거장에서 무술시합을 해 봤던 거요. 그러다가 장군에게 하마트면 목이 달아날뻔 했었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술시합을 해서 이번 싸움의 승부를 결정하는게 어떻겠 소? 잘 알겠소. 하지만 싸우기 전에 내가 장군을 초청해서 술을 한잔 나누 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하시오? 술도 좋지만 승패가 결정난 다음에 진 사람 의 간을 빼서 안주로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좋을 듯하오. 좋소, 그럼 싸움 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말을 마친 적장 용골대는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다. 벽암대사도 할 수 없이 산으로 올라왔다. 대장이 적장과 불 으면 틀림없이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할 것이라고 의기소침해 있던 의병들은 무슨 영문인지 물라서 어리둥절 했다.

이튿날 아침 벽암대사는 다시 대오를 점검하고 산을 내려가서 적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 많던 적군이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다. 질편한 들이므로 적병이 매복할 만한 곳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때 군 쿨 하나가 와서 고했다. 저쪽에 창이 하나 꽂혀 있고 창위에 이런 편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벽암대사는 군졸이 내민 편지를 받아 읽었다. 김각성 장군! 소장은 이대로 물려가오. 우리 군사들로서 장군의 군사를 모조리 물살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오나 그 옛날에 장군이 소장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 하는 뜻으로 이만 물려가는 것이오. 이런 내용이었다.

그후 벽암대사는 도처에서 적병을 물리쳤으나 조정의 항복으로 인하여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러한 벽암대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세 사람 들은 남한산성에 清溪堂이라는 사당을 지어서 그를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20. 西將台의 伝説

초췌한 仁祖대왕의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에 크게 번진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고정하옵소서. 아무말 말고 종이나 다시 가져오너라. 옆에 있는 신하의 진언도 귀찮은 듯 인조대왕은 한동안 멍하니 지평선 저쪽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지금 오랑캐들이 짓밟고 있는 한양인 것이다.

이윽고 새로운 종이 위에 가느다란 손으로 무망루라 쓰고서 붓을 던지는 인조, 이 천추의 한을 어떻게 썻는단 말이냐! 하늘도 무심 하시구나… 눈바람이 들이치는 엄동설한에 남한산성 제일 높은 곳인 서장대에서 몇몇 신하와 망국의 한을 섭고 있는 인조는 창자를 끊어 내는 통분을 참을 수 없어 서장대의 현판을 무망루라고 썼다.

때는 인조십사년 십이월, 청나라 군사가 물밀듯이 쳐들어와 이 강산을 피로 물들이니, 도성은 함락되고 나라의 운명은 바람앞의 등불이었다. 빈궁과 왕족들을 우선 강화성으로 피난시킨 왕은 적병으로 인하여 교통이 차단되는 바람에 강화도로 못가고 이곳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인조는 침략적인 오랑캐에게 항복을 할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싸워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막다른 고비에 처해 있는 것이다. 최명길에게 묻는다. 최대감! 경은 어이해서 짐이 오랑캐앞에 나가 무릎을 끓는 것이 이 나라와 종묘사직을 구할 수 있다는 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오? 황송하오나 상감마마, 지금 적병은 수십만 대군으로써 이 성을 에워싸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군사는 싸움에 미숙한 일만 명의 군사뿐이옵나이다. 더 우기 군량까지 떨어지는 이 판국에… 들키 쉴소! 짐에게 항복을 권하는 그대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이오? 황공하여이다, 상감마마. 소신의 충정을 깊이 통촉하옵소서.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사옵니다.

이때 아장 한 사람이 와서 고한다. 아뢰오! 강화성이 어저께 적병들에게 함락되었다 하옵나이다. 무엇이? 왕 이하 중신들은 일제히 놀랐다. 이 때다실어서 화친파인 최명길은 다시 왕에게 아뢴다. 상감마마! 한시 바삐 화친을 맺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종묘사직과 이 나라 억조창생이 위태로울 것이옵나이다.

날씨는 차고 바람은 매서웠다. 쓰러질듯한 몸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 왕의 눈앞에는 만주 오랑캐들에게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을 왕족들, 여러 후궁들과 궁녀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그들이 외치는 비명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하였

다. 그때 상장군으로 있는 원두표가 말한다. 삼감께 아뢰오. 적이 비록 막강한 수효라 하나 죽기를 맹세하고 한사코 싸워서 혈로를 뚫고 강화성을 탈환하겠사오니 너무 심려 마옵소서. 경의 충절은 고맙소만 이미 때가 늦었소. 아니옵니다, 상감마마. 잠시 이대로 항전하면서 명나라로 밀사를 보내서 다시 한번 원병을 청해 보심이 가할줄로 아뢰오. 원로대신 김자점의 말이었다. 그 소리에 최명길이 화를 버럭 냈다. 여보 김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오? 지금 명나라는 다 망하고 말았소. 잘못하다가 청나라에 발각이라도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쪽발이 된다는 것을 대감은 모르시오? 이때 왕은 눈을 감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만들 두시오! 다들 물러가오. 이날 밤 인조는 한참도 이를 수가 없었다. 피난을 때 다친 발의 상처도 아팠지만 팔, 다리, 가슴을 송두리째 도려 내는 것보다도 더욱 아픈 것이, 지금 왕의 마음이었다.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해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얻은 임금의 자리가 아닌가. 그 후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병자호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침략을 받게 되니, 너무나 파란 많은 인생이었다. 한편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 사이에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여보게 춘심이! 자네는 언제쯤 우리가 집에 돌아갈것 같은가? 열빠진 소리 좀 작작해, 이 병신아! 네나 내나 살아서 집에 가긴 다 틀린거여! 너야말로 열빠진 놈이구나. 아 그렇다면 빨리 도망가면 될거 아냐? 아 뼈놈들이 쭉 둘러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나, 이 팔푼이 너석. 죽으려고 환장을 했으면 너부터 가거라. 인석아, 배고파서 말할 기운도 없으니 말 시키지 말고 어디 가서 먹을거나 훔쳐와! 나도 이틀을 굶다시피하니까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 아참! 그리고 말이야, 너니까 얘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잘 들어둬! 무슨 말인데? 어제 우리 비장이 가만히 하는 말이, 이대로 있다가는 굶거나 얼어서 죽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 죽기 전에 무슨 수를 내자면서 뼈놈들한테 성문을 열어 주든지 아니면 임금을 불잡아서 내주자는 거야. 벌써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았다고 하면서 말이야. 췇! 이 자식이 정말 환장을 했나? 사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병사를 사이에선 반란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 병사들뿐이 아니라 대신들 사이에도 의견이 두 패로 갈라져서 이대로 가다가 얼마를 지탱 못할것 같았다.

이 모든 사태를 판단한 왕은 최후로 어전회의를 열고 최명길에게 청나라와 화친을 맺는 절차를 밟으라고 명했다. 명목은 화친이라고 하지만 실은 군욕적인 항복이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한지 사십 오일 만에 왕, 인조는 서장대 누각에 올라가서 열성조에게 눈물로써 고하고 산을 내려와 청나라에게 부릎을

쫓음으로써 민족만대에 수치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병자호란의 막을 내렸다.

지금도 서장대에 올라서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것을 바라보노라면 불
게 타오르는 낙조 속에서 옛날의 역사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21. 鄉校 고개의 鐵仏

백제 개로왕때의 일이었다. 산이 첨첨이 둘러싸인 어느 산골에 금슬 좋은 부부가 떠꺼머리 총각 동생을 데리고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남편은 성질이 어질고 아내는 얼굴이 고왔다. 동생 또한 몸이 건강하고 온순하여 집안이 화목 했으며, 그들은 가난한 대로 오손도손 살아갔다. 이른 아침부터 젊은 부부는 밖에 나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다.

어느날 빈 지게를 진 동생이 집 아래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과 형수에게 소리를 쳤다. 잔다 오겠어요—. 어둡기 전에 돌아오너라—. 도련님 갑자 삶은 것을 챙기셨어요? 일하다 말고 동생을 바라보며 말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그지없이 행복해 보였다. 논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산골이지만 일년내 부지런히 일한 덕분으로 식량 걱정은 조금도 없었다. 형 내외는 농사를 짓고, 동생은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틈틈히 사냥도 했다. 손을 훈든 다음 산너머로 사라진 총각의 지게위엔 활과 화살이 보였다. 그날도 역시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일을 한, 두 부부는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돌아와 있을 때였다. 갑자기 왁자지껄 하는 사람들의 말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일년 열두 달 가야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깊은 산골에 갑자기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이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다. 그러자 갑옷과 투구에 활과 창을 든 말탄 사람들이 집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집앞에 당도한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대왕마마의 행차시다. 무릎을 뚫어라. 깜짝 놀란 남편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땅에 엎드리니, 금빛 두른 갑옷을 입은 왕이 말에서 내렸다. 위엄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 산엔 산 집승이 많은가? 진뜩 겁에 질린 남편이 미처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집안에 있던 아내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왕이 소리를 쳤다. 저 계집을 끌어내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린 군사 네녀 명이 집안으로 들어가 여인을 끌어내어 왕앞에 끓어 앉히는 것이다.

잠시 여인을 바라보던 왕은 호— 절색이로구나, 이런 산속에 저런 미인이 있다니— 여봐라! 저 계집을 말에 태워라! 하고 말했다. 땅에 엎드렸던 남편

은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끌어 앉았다. 대왕마마! 안되옵니다. 이 여인은 소생의 아낙이옵니다. 굽어 살피소서. 뒷들하고 있느냐?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왕이 또 소리를 쳤다.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내를 잡아매어 놓았다. 그 다음에 여인을 번쩍 들어서 말에 태웠다. 오늘 사냥은 여기서 끝마치자! 저 사내놈을 어찌 하오리까? 죽여 없애고 싶다면, 생명이 불쌍하니 두 눈을 빼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여인이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안돼요, 우리 남편을 살려 주세요! 군사들의 발아래 걸린 사내는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댔으나 힘껏 할 수 없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내 아내를 두고 가거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은 말을 달려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 남은 군사들은 사내의 눈을 사정없이 도려내고 왕을 쫓아갔다.

얼마 후, 그 일행은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토록 평화스럽던 가정에 무슨 운명의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휘몰아 친 것인가? 두 눈을 잃은 사내는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더욱고 해가 서산마루로 뉘엿뉘엿 지려할 때, 떠꺼머리 총각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지고 내려오고 있었다. 지게 옆구리엔 산토끼 한 마리를 대롱대롱 매단 채 숨을 헐떡이며 집앞에 이르렀다. 아주머니! 다녀왔어요. 그런데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잠시 의아하게 생각한 총각이 집안으로 들어가 봤으나,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와서 사방을 살펴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자기 형이었다. 아! 형님 이게 웬일이세요? 누가 형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동생은 통곡을 하며 형을 끌어안고 몸부림쳤다. 물…나 물좀 다구. 겨우 정신이 든 형을 안아다가 방안에 뉘우고 물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다.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형님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형의 대답을 재촉했다. 이 나라… 왕이라는 놈이… 네 아주머니를 베려가… 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왕이라니요? 동생은 깜짝 놀랐다. 왕이 어떻게 여길 왔었나요? 사… 사냥을 나왔다가 여길… 알았어요, 형님! 형님의 원수를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나는 살기는 다……다 틀렸다. 이 원수… 를 부디 갚아다구. 염려 마세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형님, 제발 죽지만 마세요. 마침내 형은 숨을 거두었다. 형님! 형님!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분노에 몸부림치며 밤을 새운 떠꺼머리 총각은 이튿날 양지바른 곳에 형을 묻었다. <형님! 기펄코 형님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동생은 천천히 산등성이를 올랐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총각은 정처없이 발걸을 옮겼다.

그로부터 십여년이 흘렀다. 백제 왕은 나라의 정사를 들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서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왕이 삼천 궁녀를 거느리고 매일같이 주지육립 속에서 세월을 보내니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오늘도 왕은 몇몇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풍악을 울리고 춤추는 궁녀들 속에서 술에 취해 홍을 돋우고 있는 중이었다. 갑자기 장수 한 사람이 황망히 들어와서 아뢰었다. 대왕마마께 아뢰오, 지금 고구려 군사가 쳐 들어와서 임진강을 전쳤다 하옵니다. 뭐이라고? 우리편 군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집이 군사 이만 명을 내출 것이니, 그대는 빨리가서 고구려 놈들을 물리치고 집을 기쁘게 하게 하라! 분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고구려군과 백제군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했다. 때는 바야흐로 초겨울이었다. 쌀쌀한 날씨에 백제의 군사들은 전의를 잃고 있었다. 반면에 고구려 군사는 추운 지방에서 단련이 된지라 사기 충천하여 강이 얼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하루는 고구려군의 군졸이 장군에게 말했다. 강이 얼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오냐! 이제야 원수를 갚을 날이 온 모양이로구나. 이를 부드득 잘며 대답하는 장군은 다름아닌 그 옛날 떠꺼머리 총각.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며칠 후 진군의 나팔이 울렸다. 물밀들 쳐들어 가는 고구려군 앞에 백제군은 풀잎 쓰러지듯했다. 흐비백산해서 패주하는 백제군을 추격하다가 고구려군의 장군은 옛날에 자기가 살던 땅에 다다랐다. 자기가 살던 집은 형체만이 남았고. 형의 무덤엔 잡초가 한길이나 자라 있었다. 잠시 묘앞에 끓어 앉은 장군은 술을 따라 놓고 절을 했다. 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며칠안으로 백제왕의 목을 바치겠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하고 군사들에게 명해서 신중턱에 묘를 크게 파놓고, 형의 묘를 이장하기로 했다. 풀을 베어내고서 묘를 파헤치는데 이상한 물체가 있었다. 그것은 쇠로 만든 불상이었다. 이때 장군에게 귀에 익은 형의 목소리가 어디선지 들려왔다. 사랑하는 아우야! 고생이 많았구나. 그러나 이젠 숙을 돌리고 내 말을 명심해 들어라. 나는 지금 극락세계 부처님 곁에 와 있다. 인간만사는 들고 도는것, 이제 그만 살생을 멈추도록 해라. 인간의 업보는 내 세에서 가려 주는 것이니 부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돌아가기 바란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는 틀림없는 형의 음성이었다. 백제왕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목전에 두고 고구려 장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참 후에 고

구려 장군은 영을 내려서 진군을 하기 시작했다. 『우아—우아—』 노도와 같이 밀려간 고구려의 군사는 백제 서울의 복성을 함락시켰다. 백제왕은 황급히 도망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퇴로는 막히었다. 온 산과 들에는 피가 냅물을 이루었고 백제 군사의 시체들이 출비하게 깔려 있었다. 이윽고 백제왕이 사로 잡혀서 고구려 장군 앞으로 끌려왔다. 네 이놈 듣거라! 임금된 자가 자기 백성의 아내를 빼앗고 백성의 피를 빨아 가루와 주색에 빠져 왔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를 벌하려 하노라. 거의 사색이 된 백제왕은 엎드려서 애원을 했다. 장군이 시어! 한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소인의 목숨을 살려 주시오면 개과천선 하겠사옵니다. 예잇, 더러운 놈이구나. 한 나라 국왕으로 있던 자가 저토록 비굴하게 잔명을 보존하려 하는가. 여봐라, 저놈을 당장 참하여라! 고구려의 장군은 백제왕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잠시후에 백제왕의 목이 떨어졌다.

이때 고구려 장군 형의 묘앞에 있는 철불은 땀을 흠뻑 흘렸다는 것이다. 이 고구려 장군의 이름은 결루장군이었다. 광주군 서부면에 있던 그 철불은 지금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

22. 清涼堂의 곡(曲)

매년 음력 정월초 이튿날 산성 清涼堂에서 며칠전부터 목욕재제한 만신들이 모여들어 정성껏 치성을 드리니, 산성축성시에 억울하게 참수된 이희와 그의 부인 송씨를 위하여 그의 넋을 진위키위하여 드리는 치제이다. 이날 만신들이 모여서 치제하게된 사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이희는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축성의 빈틈없이 하느라 기일을 넘기도록 완공을 하지 못하게되자 국고금에 낭비라고 책임을 물어 그를 참수하자 그의 성축을 돋고져 가재를 모두 기울여 그의 남편을 돋고, 또한 가산이 다하자 멀리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성금을 거두어 갖은 고초를 무릅쓰고 배에 실어 쌀과 쇠불이를 가지고 광주땅 무능도까지 다달었으나, 때마침 그의 남편의 참수됨을 듣고 기절하였다. 물속에 투신 자살한 열부 송씨의 원혼이 청량당에 울음소리로 나타남에 고을에서 그의 영혼을 달래고저 그가 투신한날을 기하여 여려고을 무당과 박수들을 모아 징치고 제금을 려 굿하게되니, 그의 원혼이 비로소 명부에 들어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또한 무당들이 영협이 있다하여 매해 제지내고 굿하는 전설이 전하여지고 있다.

23. 民俗놀이 해동화

陰曆 대보름(음 정월 15 일)에 중부면 光池院里에서 行하는 民俗놀이로서 남녀노소가 마을앞 냇가에 모여 부락에서 제일 고령인 老人이 해동화앞에서 출잔(3배)을 올린후 절을 하며 住民 모두가 한해도 질병없이 대풍을 이루도록 해줄것을 就願하며 정확한 歷史的 고증없이 구슬로 전해오고 있는데, 이날은 동네 住民全員이 나무한짐씩을 모아 높이 15m, 둘레 6m의 나무기둥을 만들어 불을 태우는 놀이로서 풍악을 울리며 불기둥 주위를 돌면서 악운을 함께 태워버린다는 說이 傳해 내려져 오고 있다.

24. 池谷(못골) 地名의 由來

草月面 池月里 池谷(못골)은 京安川과 昆池岩川(세피내=洗皮川이라고도 함)이 합流하는 두 물어리를 지나 武甲山 쪽에 있다. 그러므로 그方向을 通稱하여 『못골』이라 부르며 過去에는 晉州姜氏가 大姓으로 集團住居하고 있었다. 그洞名이 생긴 由來는 다음과 같다.

世祖때 武科에 及第하고 通政大夫折衝將軍京畿左道水軍節度使를 지내신 姜孝貞이라는 분이 父親되시는 첨께서 端宗이 寧越로 被逐나실때 路上에서 영접하여 위로하신 것이 罪가 되어 避身하시던 中 이곳에 숨어 사시도록 해드린 곳이다. 그때 마을앞에 二千餘坪되는 큰 연못을 파고 亭子를 지어 閑遊토록 하였다. 그로 因해 洞名이 『못골=池谷』이라 부르게 되고, 그 연못에 달이 비치면 마치 못속에 달이 있는것 같다하여 『池月里』라 하고, 다시 새마을이 생기므로 新月里라 하였다.

지금도 그 연못자리가 논으로 變하였으나 이름은 『못배미』라 하며, 옛날모습 그대로이다. 앞으로 동리에 風景을 윤택하기 위하여, 다시 復元할 움직임이 있다. 그 연못을 반드시 水使公墓所는 마을뒤 鷹峰에 있고, 그 後孫中에는 商工部長官, 國會議員을 지낸 姜聲部씨가 있다.

池谷八景詩를 添記한다.

池谷八景 吟

- 鷹峰觀月 … 매봉의 달맞이
月上東嶺影滿池 … 저달이 동령에 떠 연못에 비치니
層流溪谷帶光移 … 층층이 계곡따라 그빛이 옮겨가네.
人間世事如春夢 … 인간의 세상사 춘몽파 같겠만
唯爾無窮相對期 … 너만은 무궁히 대할 기약 있나니.
二水眠鷺 … 두 물머리 조는 백로
昆池五浦兩川頭 … 곤지와 오포의 두 물의 머리가
相合滔滔向海流 … 서로만나 넘실넘실 바다로 흘러가네.
回轉成潭沙堆岸 … 빙빙돌아 연못되고 모래모여 언덕되니
銀鱗躍水鷺眠洲 … 고기는 물에 뛰고 백로는 가서 출아
峴山落照 … 불퇴에 지는 해
茅屋數間鎖夕煙 … 초가집 두어채 저녁연기 잡기니
輕風引止水西邊 … 솔솔바람 물고가 내서쪽에 모아놓네.

東山返照生殘色 … 동산의 저녁 노을 열분 빛깔 생기니
樹影參差似畫懸 … 나무그림 열기설기 그림같이 달려있네.
八仙鳴鶴 … 팔선정에 학이 우네.
八仙遊去獨留亭 … 여덟신선 놀고가니 정자만이 남아있네.
岩壁蘚苔古色青 … 암벽에 이끼맞은 옛빛이 푸르러
雲舞霓裳何處在 … 구름타고 춤추던 그모습 어디있노
只今間或鶴長鳴 … 지금은 간간히 학의울음 있을뿐.
鏡水綠波 … 경수의 푸른물결
溪流暫住一鑑明 … 시내물 머물어서 한장거울 밝으니
水色天光共淨清 … 물빛과 하늘빛이 다같이 맑고 맑아
風靜日暖孤帆過 … 바람자고 따뜻한날 외로운돛 지나가니
漁歌高處綠波平 … 어부노래 높은곳에 푸른물결 평평해
三峰牧笛 … 삼봉양지 피리소리
暮雨乍晴射夕陽 … 늦은비 잠간개어 석양이 비치니
三峰翠色倍生光 … 삼봉양지 푸른색 배나더 빛이 생겨
牧童牛背歸家處 … 목동이 소타고 집으로 가는곳에
吹笛聲聲谷口長 … 피리부는 소리소리 골짜기 울리네.
菊水丹楓 … 국수봉의 단풍
似弁尖峰屹洞前 … 고깔같이 뾰족한봉 마을앞에 솟았으니
滿山叢石色蒼然 … 산에 찬 무더기들 색같이 푸르러
丹楓野菊時爛熳 … 단풍과 들국화 때마치 싱그러워
杜鵑聲中月上天 … 접동새 우러우러 저달도 솟았네.
七寺暮鐘 … 칠사산 저은 종
南澗連峰似屏環 … 남한산 내려온봉 병풍같이 둘렸는데
遙看七寺白雲間 … 저멀리 칠사산 구름속에 가리웠네.
僧歸山路森羅寂 … 스님가신 산길에 삼라만상 고요해
遠響暮鐘落翠巒 … 울려오는 모종소리 먼산넘어 떠나지네.

第二章 民 談

1. 서 혼남의 곤통

광주군 중부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대왕은 강화를 향하여 피난을 떠났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큰일 났사옵니다. 적군의 선봉이 이미 양천강을 건너서 피난길을 차단하고 있다 하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왕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찌 했으면 좋단 말인가? 강화길도 막혔으니, 어디로 가야할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 보오. 황송하온 말씀이오나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행차이옵니다. 급하신대로 남한산성으로 거동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의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가기 위해서, 구리개를 지나고 시구문을 빠져 일로 한강가에 이르렀다. 적군이 도성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들리자, 왕을 수행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길을 찾아 술금술금 흘어져 버리고 왕의 곁에는 몇 명 안되는 신하들만이 남았다. 강을 건널 배가 없사옵니다.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서둘러서 배를 찾도록 하오. 신하들은 배를 찾아 강기술을 헤매었다. 그 중의 한 신하가 강전너를 향하여 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게 아무도 없소? 그러나 강전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러할때 어디서 구했는지 한 신하가 갈대 숲을 헤치고 조그마한 나룻배 한 척을 저어 왔다. 상감마마, 배라고는 이것밖에 없사오니어서 타시도록 하시옵소서. 왕의 일행이 배위에 올랐다. 그러나 노를 저을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신하 한 사람이 서툰 솜씨로 노를 저어 강으로 나갔다.

배는 기웃둥거리며 강 가운데로 미끄러져서 강 하류 쪽으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노를 저으시오! 필사의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 한참동안 흘러가던 배가 잔신히 맞은편 강가에 떴다. 후유! 왕과 신하들은 깊은 한숨을 물어 쉬었다. 그런 다음 일행은 어두워지는 길을 걸어서 한참을 가다보니 겨우 송파를 지났다. 아이구, 다리야 이젠 촌보도 뗄수가 없구나. 왕은 잠시 길섶에 주저 앉았다. 왕과 신하들은 다같이 비통한 생각에 눈물을 펼구었다. 상감마마, 소신의 등에 업히시옵소서. 신하 하나가 왕 앞에 등을 대고 업히기를 권했다. 마지못해 왕은 신하의 등에 업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갔을가.... 길은 미끄럽고 어두운데 한참 숨을 헐떡이던 신하가 더

이상 왕을 업고 갈 수가 없어서 왕을 등에서 내려 놓았다. 이제 얼마나 남았는고? 조금만 더 가시면 되옵니다. 이번엔 소신의 등에 업히시옵소서. 경들을 대할 면목이 없구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등에 업히어 왕은 겨우 남한산성 기슭에 이르렀다.

이제는 모두가 지쳐 있었다. 왕은 물론이오, 왕을 모시고 온 신하들도 모두가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눈위에 주저 앉아 있었다. 이때 나무를 한짐 짐뜩지고 산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행의 앞에 이르른 그는 전장한 품집에 순박한 인상이었다. 일행을 보자 그는 잠시 눈이 휘둥그래져 서 물었다. 웬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 상감마마의 행차시다! 신하 한 사람이 위엄있게 대답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으로 그대로 서서 천연스럽게 다시 묻는 것이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서 뭣들을 하시나요? 엎드려서 말하라! 무엄한 백성이구나. 신하가 고함을 치자, 왕이 기운없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냥 봐 두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뭇군에게 말을 했다. 지금 상감마마께서는 국난을 당하시어 피난길을 오르셨는데 시종과 말을 다 떨구고 걸어 오시자니, 귀하신 육체가 추위와 피로에 지치시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소인이 업어 드릴까요? 그러더니 지게를 벗어 내동령이 치고 짐작을 지듯이 다짜고짜로 왕을 들쳐 업는 것이다.

곧 이어 눈길을 헤치고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 사나이는 남한산성에 살면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서흔남이라는 나뭇군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을 가리지 않고 나무장사를 하는 순박한 그는 시국이야 어떻게 되든 천연 무관심이라 오늘도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왕의 일행을 만난 것이다. 왕을 업은 그는 별로 힘이들지 않은듯 가볍게 걸어 갔다. 오히려 뒤에서 따르는 신하들이 겨울 날씨인데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숨을 가빠 쉬었다. 이젠 다 왔습니다. 어느덧 산성안에 이르러서 흔남은 왕을 내려 놓았다. 얼마 후에 편전을 마련한 왕은 서흔남을 불렀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파인은 큰 고생을 할 뻔했구나! 어디 사는 누구인가 말해 보라! 네이 소인은 저 아래 산기슭 동네에 사는 서흔남이라는 나뭇군이 올시다. 그대의 소원이 있다면 말해 보아라! 왕의 갑작스런 말에 한참이나 눈을 꿈뻑이며, 서 있던 서흔남은 왕이 입고 있는 금빛 찬란한 곤봉포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주저했다. 어려워 말고 말해 보아라! 네, 저 다름이 아니옵고 나랏님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 갖고 싶사옵니다. 우둔한 나뭇군인지라, 그 이상 생각이 나오질 않았다. 저런 무엄한 놈이 있나! 시립해 있던 신하와 군사들은 어이가 없었다. 어허, 파인의 옷이 갖고 싶단 말이지,

그래 내 벗어 주마. 그리고는 시종을 시켜서 곤룡포를 하사했다. 그 뒤로 서 흔남은 평생을 두고, 이 옷을 고이 간직하고 살다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식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면 이 옷과 같이 물어 다오』하고 부탁했다. 그가 죽은 후 곤룡포를 시체와 함께 넣어서 산성 서남쪽에 있는 병풍산에 묻으니, 나라에서는 생전의 그의 공을 찬양하여 별군관이라는 벼슬을 내리었다. 그 후부터 대소 관원들이 그의 묘앞을 지날 때에는 왕의 곤룡포를 존중하여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 갔다고 전해온다.

2. 尚書洞의 由來 (광주군 퇴촌면)

광주군 퇴촌면에 평화스러운 마을이 있다. 마을 뒷산에는 살구나무가 수백 그루 들어서 있다. 살구나무 동산 제일 높은 곳에는 정자가 서 있는데, 현판에는 행림사라는 세 글자가 쓰여져 있다.

어느 날 정자에 초로의 두 남자가 조촐한 술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대감! 살구로 빚은 술이 이토록 맛있는 줄을 몰랐소. 허허— 왕대감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 내 마음도 한결 기뻐집니다 그려. 이렇게 한가한 몸이 되어 풍치좋은 곳에서 대감과 술을 마시고 있노라니 신선이 부럽지 않소이다. 그런데 왕대감도 이대로 낙향하실 작정이시오? 더 이를 말이 있겠습니까! 상감은 점점 우매하여 바른말 하는 충신들을 멀리하는 이 때에 벼슬 자리에 어떻게 더 앉아 있는단 말입니까? 정말로 큰일이오. 나라의 정사가 이렇게 어지러우니, 이나라 이 백성의 운명이 한탄스러울 떠름이오. 중놈인 신돈을 없애기 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잊어 버리고 술이나 듭시다. 술에 취하면서 세상사를 잊는 수밖에 더 있겠소?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두 사람은 이루상서인 백장파 판사사인 왕이였다. 고려 말기 임금은 생전에 지극히 사랑하던 왕비를 잊지 못해서 절을 찾아 다니며 불공을 드리기 위해 전념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신돈이라는 충을 불러다가 모든 국사를 일임하니 나라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졌고 조정에서는 간신들만이 득세를 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었다.

이런 풀을 보다 못한 몇몇 충신들은 벼슬자리를 버리고, 각각 시골로 낙향하여 은거하게 되었는데 이부상서로 있던 백장이 이 마을에서 은거하자 마을 이름을 상서동이라고 불렀다. 이 마을에 자리를 잡은 백장은 뒷 동산에 살구나무를 수백 주 심어놓고 스스로 즐기는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감이

뒤따라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임금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이 두 사람에게 들려왔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지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대궐이 있는 쪽을 향해 옆드려 통곡을 했다. 장차 이 나라가 어찌될고? 고려의 사직이 위태롭게 되었나 봅니다. 백장과 왕이는 땅이 꺼지게 한탄을 했다. 곧 이어서 나이어린 우왕이 즉위하였으니, 정사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북방의 오랑캐족들은 자주 변경을 침범해 왔다. 세월은 흘러, 새 임금이 즉위한지 십여년 만에 고려의 사직은 마침내 쓰러지고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이씨 조선을 세웠다.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앉아 태조라 칭하고, 절개를 굽히지 않는 고려의 유신들을 차례로 잡아 죽이기 시작하였다.

평화스러운 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백장과 왕이 두 사람은 이성계의 부름에 끌려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죽음의 독수를 피해, 강원도 심산유곡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상서동은 이러한 내력으로 상서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3. 法華洞의 由來 (西部面 上司倉里)

청나라가 만주에서 일어난 후 국세를 확장하고 대군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략하던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임금이 피난가 있는 남한산성 밖에서는 매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라야 모두 일만 이천 명에 불과했고, 청나라 군사는 십만이 넘었으니 그야말로 중파부적이었다. 산성안 임금의 편전에서는 매일 어전회의가 열리고 항복을 하자느니,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싸우자느니 하고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한편 청나라 군사들은 남한산성이 천연의 요새가 되어서 아무리 해도 함락시키지 못하겠으므로 산성안의 식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 하여 별로 싸움을 들구지 않고 시일만 풀었다.

차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산성안에서는 청나라 군사가 예상한대로 식량이 떨어져 가고 신하들과 백성들도 차츰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러할 때 원두표 장군이 왕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소신이 죽기를 결심하고 나가서 싸우려 하오니 군사 삼천만 풀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연로한 장군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산성이 적에게 함락당하게 될 듯합니다. 앉아서 죽음을 당하느니보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이다. 이와 같은 원두표의 말을 듣고서 왕이 마음을 결점치 못하고, 묵묵히 있을 때 화친파의 우두머리인 최명길이 입을 열었다. 소신 아뢰옵니다. 청나라 군사를 물리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온데, 이제 군사를 내어 싸움을 돋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온데 이제 군사를 내어 싸움을 돋군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오히려 청나라 군사의 노여움만 일으키게 되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 대감은 잠자코 계시오! 어찌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한단 말이오 만약에 성이 함락되는 날이면 상감마마 이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 것인가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러자 원두표가 무서운 얼굴로 최명길을 노려보며 말을 했다. 항복을 하려거든 대감이나 혼자 나가서 해보구려! 에이, 비겁한 늙은이! 경들은 싸움을 마시오! 짐이 원장군에게 군사를 내 줄것이니 신명을 바쳐 나라를 구해 보도록 하시오.

이리해서 원두표는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섰다. 청나라 군사들의 눈을 피해 북문밖에 있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친을 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나라 군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편에서는 밥을 먹고, 한편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원두표는 기회는 이 때다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 가까이 이르렀다. 원두표가 칼을 번쩍 들어 신호를 하자 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군사들은 일제히 적진을 향하여 쳐들어 갔다. 그러자 청나라군의 진지에선 큰 혼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도망을 하기에 바빴다. 산과 들은 아비규환이었고, 피로 붉게 물들어졌다. 이렇게 한참 청나라 군사를 치고 있을 때 적진 후방에서 일진 군마가 달려 나오며 삼백근 쯤되는 철퇴를 휘드르는데 원두표의 군사들은 그 철퇴에 맞아 수없이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종횡무진하게 날뛰는 적장의 기세에 눌려 전세는 바뀌지고 말았다. 원두표는 할 수 없이 군사들에게 퇴각을 명했다.

크게 낙담을 한 원두표는 남은 군사들을 모아 다시 친을 쳤다. 철퇴를 쓰면서 날뛰든 적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양고리라고 하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당해 낼 자가 없습니다. 양고리라? 비장 서기남의 말을 듣고 원두표는 깊은 사름에 잠기었다. 다음날 해가 높이 떠오르자, 전날의 패전을 설욕하려는듯 검은말에 올라탄 적장 양고리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싸움을 돋구었다. 등등등 북소리를 울리면서 싸움을 재촉하던 적군들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함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쳐들어 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처참한 싸움이 벌어졌다.

천추에 셋지못할 원한을 품고 아군은 달려드는 적의 말발굽에 무참히 죽어갔다. 그러나 원두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죽기를 한사코 싸웠다. 이렇게 한참을 싸우는데 비장인 서기남이 원두표에게 소리를 쳤다. 장군님! 어서 군사들

을 뒤로 물리도록 하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것입니다. 알았다! 뒷산으로 군사들을 물리도록 하라! 하고 명을 내리고 원두표 이하 전 장졸들이 채빨리 몸을 빼어 뒷산으로 올라갔다. 청나라 군사들도 어지간히 지쳤고, 또 많은 사상자가 생겼는지라 추격을 하지 못했다. 뒤로 물러선 우리편 군사들이 대오를 정비해보니 남은 군사가 불과 천 육백 명 뿐이었다. 절반 가까이 전사를 한 것이다. 원통하구나! 오늘밤에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을 기습해야겠다. 장군님 한가지 좋은 계교가 있습니다. 서기님의 말이었다. 좋은 계교라니? 적들은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쳐들어 올 것입니다. 이대로 적을 맞아 싸우게 되면 또 한번 패할 우려가 있사오니, 밤을 새워서 산아래에 함정을 판다음 적장 양고리를 그리로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참 좋은 의견이다. 이리하여 날이 어두워 지자 군사들을 독려하여 밤새도록 함정을 팠다.

날이 밝자 청나라의 장수 양고리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성 밑에 이르렀다. 이때 서기남은 다시 원장군에게 말하기를 제가 군사 오백을 이끌고 선봉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거짓 싸우는 체하다가 도망쳐 올 때 양고리가 추격을 할 것인즉, 그때 양고리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십시오. 알았다 무운을 빈다. 서기남이 오백의 군사를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밤새 파놓은 함정을 지나서 적진앞에 이르자 청나라 군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도와 같이 달려나왔다.

적당한 거리를 보아 서기남이 군사들에게 신호를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청나라 장수 양고리는 삼백 근 짜리 철퇴를 휘두르면서 서기남을 바짝 추격해 왔다. 거의 서기남의 뒤에까지 다가와서 철퇴를 내리치려는 찰나에 말의 앞발이 푹 땅에 빠지면서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산위에서 바라보고 있던 원두표와 군사들은 와—하는 환호소리를 내며 산아래로 달려 내려왔다. 양고리를 잃은 청나라 군사들은 양고리를 구해 보려고 달려들었으나, 사기 충천한 우리 군사들에게 물리되었다.

이로써 한 사람이 능히 만 사람을 당해내는 청나라 장수 양고리를 잡아죽일 수 있었다. 원래 양고리는 청나라 황제의 매부로서 단신으로 몽고의 여덟 왕자를 사로 잡은 천하 명장이었다. 법화둔이라는 곳에서 출생한고로 자칭 법화장군이라 하였다. 청나라 황제는 양고리를 추모하여, 그 후 남한 산성 북문밖 이 싸움터에 법화암이라는 절을 지어 공양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그 곳 고을의 이름을 법화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암구령이와 총각

지금부터 약 육백년 전 먼 옛날 이야기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한양에서 흘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히 살고 있는 한 총각이 있었다. 가세가 날로 기울어 이제는 끼니마저 제대로 잊지 못하게 되자,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광주에 있는 친척집으로 길을 떠났다.

때는 이른 봄철이라 가뜩이나 짧은 해는 남한산에 이르자 풀각 져버리고 말았다. 날씨는 아직도 쌀쌀하였고 아침부터 맑고 나온 임도령은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산속의 어둠은 더욱 짙어 갔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급기야는 억수 같은 비와 함께 광풍이 몰아쳐 왔다. 임도령은 그만 당황하였다 빗줄기는 사정 없이 얼굴을 때리고 철혹같은 어둠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온 몸이 떨리고, 먼길을 걸어 온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더듬더듬 발끝으로 길을 찾았다. 갈수록 길은 혐해지기만 하였고, 나뭇가지들은 아프게 임도령을 찔렀다. 한시 바삐 이 산속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산길을 더듬 거렸으나 비오는 어둠속에서 제 길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신없이 발을 내딛면 임도령은 한참 만에는 자기가 길을 잘못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면 갈수록 길은 더욱 혐해지고 사방은 어둠뿐이었다. 겁이 덜컥 난 임도령은 이젠 배고픔도 추위도 다 잊어 버렸다. 다만 이 모진 비 바람 속에서 혹시 맑은 산짐승이라도 나타날까 하는 걱정에 온 몸은 공포로 사시나무 멀리듯 하였다.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임도령은 도무지 제정신이 아닌듯 떨결음이 헛 짚여지고 너머지곤 하였다. 그러다 어디선가 반짝하는 불빛을 본 듯한 환각에 사로 잡혔다.

그는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불빛을 다시 찾았다. 틀림없이 비바람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정녕 환각만은 아니었다. 임도령은 뭘듯이 기뻐하며, 그 불빛을 찾아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렸다. 보일 듯 말듯 깜박이는 불빛이야말로 지금의 임도령에겐 유일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거의 기다시피 찾아 잔 그집은 이상하리 만큼 깊은 산중엔 어울리지 않는, 단 한채의 인가였다. 그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으나 마음 한 구석에선 괴이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집 방안에서 흘러 나오는 밝고 푸른 불빛은 어딘지 이 산속과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았다. 혹시 산도적의 집이나 아닐까? 임도령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그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 무서우리 만큼 조용했고, 어딘지 기

분나쁜 공기가 감도는 듯 하였다. 그러나 임도령은 용기를 냈다. 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꿀꺽 침을 삼키고 멀리는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여보시오, 주인어른 제십니까? 『…』 대답이 없다. 임도령은 무서운 침묵에 소름이 오싹 했다. 여보시오. 그러나 여자의 치마 끄는 소리가 나고 대문이 열렸다. 이 오밤중에 뉘이신지? 아, 아니 당신은? 임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이 훌연히 나타난 사람은 묘령의 아리따운 처녀였다. 산속에서 처녀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괴이한 일인데, 그녀의 용모는 어찌나 예쁜지 더욱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의 말하는 목소리도 또한 얼마나 고운지 임도령은 그만 넋을 잊고 서서 그 황홀한 모습에 정신을 잃고 있었다.

뉘신지 모르오나 어서 안으로 드시여요. 예? 예, 나 나는 한양성에 사는 임도령이라 하는데 그만 길을 잃어 … 호호 … 그러셨나요? 나는 용녀라고 하운데 어서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녀는 임도령을 곧장 방안으로 인도하였다 임도령은 다시 한번 용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 들어선 임도령은 또 한번 깜짝 놀랐다. 으리으리한 가구들엔 자개가 번쩍이고, 아름다운 병풍이 방안에 걸게 쳐져 있었다. 오묘한 운치 속에 임도령은 그저 황홀할 뿐이었다. 그만 두리번 거리시고 이리좀 앉으시어요. 용녀는 꺼리낌없이 임도령을 아랫목으로 앉을 것을 권했으나, 임도령은 비에 젖은 초라한 자기의 행색으로 이 호화찬란한 방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송구스럽기 짹이 없었다. 어마나 비를 많이 맞으셨군요. 우선 이 수전으로 물을 닦으세요. 임도령은 용녀가 전네주는 수전을 받아서 얼굴과 목의 물기를 닦은 후 웃목으로 가서 불안스레 쪼그리고 앉았다.

방안의 오묘한 향기속에 정신이 몽롱해 짐을 느끼며 임도령은 다시 한번 흠끔 용녀를 훔쳐 보았다. 빨아 삼킬듯한 도통하고 붉은 입술, 영통히 빛나는 까만 눈빛, 붉으레한 두 볼에 번지는 미소, 짱장을 태우는 듯한 그 목소리는 임도령으로 하여금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할 정도였다. 우선 마음을 놓으세요. 지금은 꿈이 아니랍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구슬이 구르는 듯한 목소리를 다시 듣자, 임도령은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본시 소녀는 지금껏 당신을 기다리던 몸, 모두가 오늘 밤을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아니 나를 기다렸다구요? 너무나 뜻밖의 이 소리를 듣자, 다시 혼이 빠진 듯 임도령은 용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호호호, 겁내지 마세요. 마음을 폭 놓으시래두요. 당신과 나는 옥황상제께서 점지하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였읍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며, 또 당신께서 꿈

을 꾸고 계신 것도 아니니 안심하세요. 아니 옥황상제께서 점지하신 인연이라니? 산속에서 당신이 길을 잃고 비바람을 만나서 고생하신 것도 모두가 옥황상제님의 뜻이니 더 묻지는 마세요. 지금 당신은 시장하실테니까 차려 놓았던 주안상을 곧 가져 오겠으니 기다리세요 하고 용녀는 자리를 떴고 혼자 남은 임도령은 정말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방안을 둘러 보았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호화로운 집, 그리고 지금 부엌으로 나간 용녀라는 처녀와 함께 하룻밤을 지낸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입이 헤벌어지고 침이 삽켜졌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약간의 의아심과 더불어 무서운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정말 산도적의 딸이나 아닐까? 혹은 귀신이나 아닐까?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데, 또 문소리도 없이 용녀가 들어왔다. 상이 휙도록 산해 진미의 주안상을 차려 온 용녀는 그 고운 손으로 임도령에게 잔을 쥐어 주곤 술을 따랐다. 다소곳한 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며 임도령은 용녀가 따라 주는 대로 술을 몇잔이고 받아 마셨다. 임도령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올랐다.

밤이 깊어 삼경이 넘는 시간이 되었으나 그동안 용녀는 자기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다. 끝끝내 모르는 용녀의 신분임에도 임도령은 시간이 갈수록 용녀에게 연정을 느꼈다. 이젠 임도령은 두려움을 잊었다. 술을 따르던 용녀가 슬며시 임도령의 손을 잡고 속삭이는 것이다. 서방님! 이제 그만 상을 물리시고 기다리고 있는 저를 안아서 저 비단 이불에 누워 주세요. 아니 비단 이불이라니? 임도령은 다시 놀랬다. 조금 전까지도 없었던 비단 이불이 아랫목에 곱게 펴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색으로 수놓은 원앙침도 놓여 있었다. 용녀는 몸이 달아오르는 듯 임도령의 품으로 파고 들었다. 어서요 서방님, 저를 안아다 비단 이불속에 뉘어 주셔요. 어서. 용녀! 용녀! 임도령은 가슴속에 활활 타는 불길을 어쩔수 없어 용녀를 힘껏 끌어 안았다. 하지만 서방님! 저의 부탁 한 가지만 잊지 마셔야 해요. 오늘밤이 지나 내일이 되면 다시는 용녀의 생각일랑 마셔야 돼요. 아니 용녀를 잊어 버려야 하다니? 아아 내 어이 용녀를 잊을 수 있단 말이오, 용녀! 용녀! 아아, 서방님! 임도령은 용녀를 번쩍 안고 비단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용녀와의 꿈같은 하루밤을 지낸 다음 날 임도령은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용녀를 혼자 두고 가는 마음이란 아쉽기만 했다. 한참을 가던 임도령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돌아가 용녀와 함께 살고싶어 가던 길을 돌아섰다 바로 이때였다. 온산이 쟁쟁 울리는 큰 소리가 나며 커다란 목소리가 임도령

을 향해 말하였다. 임도령 들판라!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너는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어서 네 갈길이나 가거라. 용녀는 오백년 묵은 암구령이 이니라! 예예? 용녀가 암구령이라구요? 원, 그럴리가 있읍니까? 산신령님. 이렇게 엎드려서 반문을 한 임도령이었으나,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산신령의 자취는 보이지가 않았다. 필경 임도령은 자기가 헛소리를 들었나보다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달려 용녀의 집을 찾아 잤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용녀의 집이던 자리엔 그 아담한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다만 한 그루의 고목나무만 이 기웃뚱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머리를 풀어 헤친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얼굴은 자기와 어젯밤을 같이 한 용녀였다. 용녀는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서 있었다. 용녀! 용녀! 아니 어째서 돌아 오셨죠? 가다가 암구령이란 말을 들은 모양이로군요. 용녀의 태도는 더없이 쓸쓸했고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잡아 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다.

잠시 후에 목소리가 다시 낮아지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와서 감춰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오백년 묵은 암구령이오. 세상의 남자인 당신의 힘으로 이제 나는 승천하는 걸이니 다 당신의 덕이오. 아무쪼록 편안히 계시오 말을 마친 용녀는 무엇에 빨리듯 하늘로 빨리 올라갔다. 점점 조그맣게 보이는 용녀를 임도령은 미친 듯이 불러봤다. 그러나 용녀는 점점 하늘 높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용녀! 용녀! 서방님! 잠시 후엔 내가 올라갔던 자리에 비늘 세개가 떨어질 것이다. 그 비늘이 떨어진 자리를 서방님의 묘자리로 쓰십시오. 그러면 서방님의 자손중에 유명한 장수가 꼭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용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리고, 용녀는 그 자태를 영원히 감춰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늘 세개가 내려왔고, 그 비늘은 땅에 떨어져서 매화나무 세그루로 변했다.

그 후 임도령은 나머지 여생을 살고서 그 매화나무 자리에 묻히었는데, 용녀의 마지막 말은 그대로 들어 맞아 임도령의 자손중에서 유명한 장수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임경업 장군이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비늘이 변한 매화나무 터의 능 안에는 아직도 임도령이 묻혀 있는데, 남한산성 안에서 개통리를 바라보며 서문인 우의문을 나서서 서산 등성이에 오르면 이 낙매화터의 묘에 이른다.

5. 낙송우물의 전설

그 옛날 광주군 서부면에 사는 도부자라는 사람은 아들 형제가 있었다. 아들은 점점 커갔으나 큰 아들은 도무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심술이 궂었고, 반면에 작은 아들은 몸이 약했으나 하루종일 방안에 들어 앉아서 청아한 목소리로 글만 읽었다. <음— 역시 우리 집안을 이을 놈은 작은 놈이야 내가 죽기 전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봐야 할 텐데. 은근히 작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도영감이었다. 그러니 자연 큰 아들은 이러한 눈치를 채고서 항상 불만을 품고 기회있을 때마다 동생에게 심술을 부렸다. 그러나 세상 만사는 사람의 뜻대로 안되는 것인지라, 작은 아들이 과거를 보기도 전에 도영감은 갑자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자마자 형은 아우에게 말했다. 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만일에 말을 듣지 않을 땐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무슨 말씀이든 잘 듣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공부를 집어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 오너라. 형님, 집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틈 나는대로 해오겠어요. 너는 처음부터 내 말을 안듣는 거냐? 이 자식 우선 좀 맞아야겠구나! 형은 동생을 통통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아버지를 여원 슬픔으로 괴로운데다 형에게 때까지 맞으니 아우의 서러움은 말할 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동생은 생전 처음 자제를 지고 집을 나섰다. 살을 에이는 겨울 날씨에 눈을 밟으며 산으로 올라갔다. 일어 터질 것만 같은 뺨이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으나, 마음대로 되질 않았다. 해가 서산에 거의 질 무렵에서야 나무 한 짐을 해 가지고 넘어지면서 겨우 집에 당도했다. 추위와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형에게 인사를 안할 수는 없었다. 형님, 다녀왔습니다. 알았다. 부엌에 밥이 있으니 찾아먹고 자거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네가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 네? 복받치는 설움을 안고 저녁 밥도 안 먹곤 자기 방으로 들어간 아우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이튿날 형이 잠을 깨서 가만히 보니, 아우가 일어나지 않는지라, 이놈을 혼을 내야겠다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생의 방문을 열고 소리를 쳤다. 야 이 자식아! 왜 벌써부터 꾀를 피우냐? 여긴 이제 내집이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 버려라! 형의 호통 소리에 간신히 일어나다가 동생은 다시 자리에 쓰러졌다. 형님, 몸이 아파요. 뭐라고? 꾀병을 부리기냐? 형은 동생의 거동을 지켜보다가 더욱 화를 내고 소리쳤다. 너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나는 앞으로 네 끝을 안볼 터이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황하니 나가 버렸다. 밥을 할 사람이 없으니 동생은

또 깎어야 했지만 형은 동네 주막집으로 달려가서 아침 부터 술탐령을 했다
동네에서도 이미 형의 고약한 마음씨가 소문이 나서 누구 한 사람 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술을 먹고 있던 형은 잠시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서 무릎을 쳤다. 여보 주모!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아침부터 무슨 얘길 하잔 말이예요… 남 장사도 안되게 이상한 수작하자는 건 아니겠지? 아파 장사못해 못번 돈은 내가 물어주면 되지 않소. 그건 그렇고 사실은 말야 내가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려니깐 귀를 좀 가까이 대오. 한참 동안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던 주모의 표정이 휘둥그레지며 놀라는 것이다. 아니 뭐요! 세상에 참 무서운 사람 다 있구먼. 그려니 내가 주모만 믿고 하는 말이 아니오. 일단 잘 되면 우리 둘이서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 절대 비밀로 해버리자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보라구, 하두 가슴이 놀래서 아무 말도 안들려. 그럼 빨리 고향에 가서 사람을 불러오라구. 알았어. 그런데 일이 끝난 다음에 딴 소리하면 당신 죽고 나 죽는 거요? 아 여부가 있을라구. 노잣돈 여기 있어. 그러면서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건네 준다.

한편 간신히 몸을 기동하게 된 동생은 형의 심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형 몰래 공부를 계속했다.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려가서 한참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웬 전장한 남자가 도끼를 들고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인상이 험상궂고 눈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동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다가 둘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는 순간 번개같이 달려든 사나이는 동생을 깔고 탔다. 공포에 질린 동생은 한동안 허우적거리다가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늘어졌다. 그런데 그 험상궂은 괴한도 인정은 있었던지 죽 늘어진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배위에서 내려서 동생을 훔들어 깨웠다. 애야! 정신차려 봐라. 이윽고 동생은 눈을 떴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그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도 나는 너를 죽여야 한다. 너는 이 길로 곧 장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 한다.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선 안되는 거다. 알겠느냐? 왜 그래요 아저씨? 나는 사실은 네 형으로부터 돈을 받고 너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처음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차마 죽일수가 없어서 살려주는 것이니.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평생동안 네 형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약속하겠어요, 아저씨 살려 주어서 고마워요. 그럼 빨리 가 보아라. 네, 안녕히 계세요. 흐느껴 울며 사라지는 소년의 등에 낙조가 서글프게 비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십년후 — 천륜을 버린 형의 결을 떠나서 자란 동생은 갖은 신고꼴에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를 제수받고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의복은 일부러 낭만한 차림이었으나, 허리춤엔 묵직한 마패가 감추어져 있고 멀리서 뒤따르는 이들들에게 호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십년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그의 심중에 교차하는 감회는 착잡했다. 동매에도 잊지 못하는 원수, 아니 형을 잡아서 치죄하는 것, 또한 그동안 성묘 한번 못해 본 부모님 산소에 참배하는 것, 모두가 감회가 깊은 일이었다.

이윽고 고향 마을에 돌아온 그는 저녁 때가 되어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집에 들렀다. 역시 옛날에 있던 주모는 없고 낯 모르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었다. 여보슈 주인네! 말좀 물읍시다. 네, 뭇데유 손님. 마을에 도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나요? 아 그 도서방 말씀이군요. 그럼요 아직도 살고 있죠. 아 그런데 옛날에 부자로 살았다는 데, 지금은 알거지가 돼서 투전판으로만 돌아다닌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사람과 잘 아시는 사인가요? 아닙니다. 전에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오. 주막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암행어사인 동생은 주효를 차려 가지고 부모님의 산소를 참배했다. 눈물로 술잔을 채우다시피 한참을 울고난 동생은 이제부터 형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 아뢰고 또 한번 눈물을 뿐였다.

한참 묵념을 올리고 난 뒤 광주 부윤을 향해서 걷는데, 길 옆에 웬 샘물이 맑게 흐르고 있어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샘물을 보니 갑자기 목이 말라 그는 엎드려서 물을 마시려다 주춤하고 물속을 들여다 보았다. 물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니, 그 옛날 자기를 미워하던 형의 얼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옛날에 형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십년동안 원한을 품고 이제 다시 원수를 갚으려고 형을 찾아온 나는 도대체 어떠한가? 어떻게 생각하면 형보다 더 나쁜 놈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식경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그는 한 동안 먼 산을 바라보다가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가기 시작했다. 동생은 형의 죄를 용서한 것이다. 그 때부터 남한산성의 서장대 아래쪽에 있는 우물을 낙송우물이라고 불렸으며, 후세에 송사하는 자가 이 물을 마시면 패소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6. 龜頂岩의 伝說

눈보라가 계속 휘몰아치고 있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울창한 숲에는 어둠이 짓들기 시작했다. 앞을 분간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벌써 며칠째 산속을 헤매고 있는 왕건은 너무나 지쳐 있었다. <정신을 차려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아주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를 쓰고 걸으려 해도 두 다리가 자꾸 구부려지면서 넘어지려고 했다. 이젠 배고픔도, 추위도 감각을 잃은 채 그대로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자고만 싶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가> 원래 고려 태조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었다.

어려서부터 인물이 출중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나이가 스물이 넘어 청년이 된 왕건은 학문과 무예에 능통하게 되었다 그 때, 왕건의 고향인 송도를 위시해서 한수지방은 궁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므로 왕건은 궁예의부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날로 성미가 포악해지는 궁예의 학정으로 인하여 민심이 이탈되었다. 그리고 점차 왕건에게 민심이 쏠리게 됨을 안 궁예는 왕건을 죽이려 한 것이다. 이를 사전에 알게 된 왕건은 그의 독수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를 궁예의 군사가 맹렬히 추격하는 중이었다. 협준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곳까지 피해 왔으나, 이젠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는 몸을 누울 곳이 있는데가 없을까 하여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봤다. 그러나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사방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주위를 더듬어 보니 한 인가가 보였다. 창문으로 등불이 비치는 것이 확실했다.

마침내 인가를 발견한 것이다. 혼신의 힘을 몰아서 산아래로 내려갔다. 아직도 출기차게 내리는 눈은 무릎을 덮었다. 어둠속을 헤치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왕건은 아름드리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고 나무 등결에 살을 찢기우면서 정신없이 걸었다. 자꾸 감기는 눈을 비벼가며, 눈덩이를 입에 넣기도 했다. 기운을 가다듬어 산 아래로 내려가던 왕건은 넘어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눈이 몽쳐져서 저절로 굴려 내려가게 되었다. 그는 산 아래에 당도하여 불빛이 비치는 집까지 기어갔다. 주인을 불렀다. 깊은 여자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이 밤에 누구세요? 『…』 할아버지! 밖에 누가 왔나봐요. 글쎄, 이 밤중에 누가 왔을까? 제가 나가 볼까요? 아니다 넌 가만 있거라 하더니 대문이 열리며 백발 수염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다. 그와 동시에 대문에 기대어 섰던 왕건의 몸은 힘없이 쓰러져서 실신을 하고 말았다.

아니 이게 웬 사람이냐? 쓰러진 왕건을 굽어보던 노인은 깜짝 놀라며 집 안을 향해 소리쳤다. 얘, 장선아! 빨리 좀 나오너라!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이구머니! 할아버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대문을 여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찌됐든 안으로 데리고 가자. 두 사람은 왕건을 양쪽에서 부축해 가지고 방에 들여다가 눕혔다. 왕건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겨우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후에 노인은 왕건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손녀인 장선은 부엌으로 나가서 미음을 끓이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왕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서 헤매고 있던 왕건은 노인과 손녀의 극진한 간호로 겨우 잠았던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 보았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젊은 이. 노인의 물음에 몸을 벌떡 일으키려다가 왕건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하, 가만 누워 있으시오. 몸이 원체 많이 상했으니까 얼마동안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할 거요. 여기가 대체 어디쯤 되는 곳입니까? 그런 것은 차차 알아도 되니까 몸조리나 잘 하도록 하시오. 얘, 장선아! 어서 이 손님에게 미음을 갖다 드리도록 해라. 네. 장선이라고 불리우는 처녀는 이제 열 일곱이 된 것 피어나는 꽃 봉오리처럼 아리따운 처녀였다. 부엌에서 미음을 갖고 들어온 장선은 수줍은 자태로 왕건 앞에 미음그릇을 놓았다. 얘, 장선아! 수저를 이리다오. 누운채로 떠 넣어 줘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조금도 어려워 말고 누워 있으시오. 왕건은 엇비스듬히 일어나서 미음을 간신히 먹었다. 그러나 미음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질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만 닷세를 산속을 헤매면서 아무것도 먹질 못했으니 말이다.

날이 갈수록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미안한 일이었다. 몸이 웬만큼 회복되자 왕건은 노인에게 말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머무르기가 죄송해서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일어나시오? 팬찮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아무말 말고 그대로 머물려 있으시오. 노인의 정성어린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서 왕건은 또 그대로 주저 앉았다. 왕건이 그 집에 머문지도 어언 한 달이 넘었다. 세상 만물은 음양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만 하듯이 청년 왕건과 장선 낭자는 어느덧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낭자의 할아버지도 두 사람의 사랑을 눈치채고 자리를 피해 주기도 하고, 약초를 캐러 간다는 평계로 하루종일 집을 나가 버리기도 했다. 장선낭자! 나는 아직껏 여자를 모르고 살다가 낭자를 만나서 생명을 건지었고 또한 낭자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몸이오. 도련님! 저는 언제까지나 도련님과 살고

실은 마음 뿐이옵니다. 낭자! 낭자는 내가 잠시 떠나갔다 올 동안 참고 기다려 주겠소?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사와요. 하오나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충수하게 생긴 왕건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이 흘리게 된 낭자였지만, 사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니 언제 훌쩍 떠나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던 낭자에게 마침내 올 것이 온 모양이었다. 자세한 말을 할 수가 없는 몸이라 답답할 뿐이오. 소녀는 도련님을 위해선 죽을 수도 있는 몸이옵니다. 장선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왕건이 얼마동안 볼 일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 몸은 대장부로서의 할 일이 있는 몸이오. 달리 생각 말고 기다려 주구요. 알겠읍니다. 도련님은 제가 쉽어서 그려신다는 것을. 쓸데없는 말을 마오. 이 몸도 언제까지나 낭자 곁에 있고 싶소만, 장부는 큰 뜻을 이룬 다음, 사사로운 일을 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도련님! 소녀가 공연히 도련님의 마음을 괴롭혀 드렸나 봅니다. 하오나… 구슬같은 눈물을 감추려는 듯이 왕건의 품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다. 미안하오! 낭자, 아무 염려말고 있어 주오. 머지 않아 낭자 앞에 금의환양하오리다. 도련님! 더욱 흐느껴 우는 장선의 몸을 힘 있게 껴안는 왕건의 입술은 어느덧 장선의 입술위에 겹쳐지고 경정에 휩쓸려서 몸을 떨었다.

산천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밤. 노인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고 처음으로 살을 맛대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몰랐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염없는 사모의 정열을 태우던 두 남녀는 밖에서 들려온 인기척에 놀라, 서로 자리를 물러 앉았다.

잠시 후 노인이 방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도련님은 내일 길을 떠난다 하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대로 우리하고 영영 같이 살줄 알았는데 – 고정하십시오. 할아버지 잠시 동안만 기다려 주시면 큰 일을 이루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라를 위해서라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러나 일신의 일을 먼저 처리한 연후라야, 나라 위하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잘 알겠읍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 쯤이나 돌아오겠소? 지금이 봄이니까 가을 쯤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남자 대장부의 언약이니 틀림없는 줄 믿겠소.

이렇게 해서 이튿날 아침, 청년 왕건은 사랑스러운 장선 낭자와 노인을 남겨 두고 길을 떠났다. 때는 봄철이라 이름도 모르는 새소리며, 산과 들에 만발하게 피어난 꽃들은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듯 기쁨에 충만해 있었으나 사랑하는 낭군을 떠나 보내야 하는 장선 낭자의 가슴은 메어지듯이 아

프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도련님 손녀를 잊지 말고 돌아와 주시어요 이를 말이겠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보답이 있게 마련이오. 행여 이상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할아버님 모시고 편안히 있으시오. 참고 있던 장선 낭자의 손목을 놓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 뒤 발걸음을 돌리는 청년 왕건은 산마루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 때까지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장선 낭자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왕건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히었다. 장선 낭자와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떠나야만 하는 왕건은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었다 세월은 흘렀다. 태양이 작별하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 몽매에도 낭군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장선 낭자는 들에 심은 콩이며 고구마등을 거둬 쌓아 놓고, 산에 올라가 머루를 따다가 술을 담았다. 그런데 하루는 깊은 산 속으로 약초를 캐려 나간 할아버지가 날이 어두워서야 온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험한 바위 위에 피어 있는 약초를 캐려 바위를 오르다가 떨어져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겨우 네 발로 기어서 돌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외롭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집에 그 이상 더 큰 불행은 없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안에 눕힌 장선 낭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선아! 으으음,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것 같다. 죽기전에 네 낭군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 할 텐데 … 그이는 꼭 돌아옵니다. 그안에 할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셔야지요. 글쎄 말이다. 그런데 온다는 날짜가 다 되지 않았느냐? 산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니까 올 때가 됐나봐요.

장선낭자는 웬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었다. 이 가을에 틀림없이 돌아 와줄 것인가? 만일에 안 온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틀림없이 오실 거야. 그토록 철석같이 굳은 언약을 하셨는데— 매일처럼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행여 낭군이 오실까 하여, 산마루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 앉아 낭군이 떠나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 이러한 날을 매일처럼 지내고 있는데도 기다리는 낭군은 돌아오질 않고 할아버지의 병환만 날로 깊어갔다.

산에는 낙엽이 쪄서 양상한 나뭇가지만이 바람에 흔들려서 서글픈 소리를 내고 날씨는 차차 겨울로 접어들건만 오늘도 바위 위에서 낭군을 기다리고 있는 장선 낭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눈발이 비치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장선 낭자의 흐느낌 속에 숨지고 말았다. 가눌 수 없는 설움을 안고 할아버지를 장사지내고 난 장선 낭자는 또 다시 바위에 올랐다. 도련님— 힘을 다해서 소리쳐 불렀으나 자기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올 뿐 기다리는 낭군의 모습은

그림자도 비치질 않았다.

도련님— 낭자는 안타깝게 외치고 있었다. 휘몰아치는 찬바람에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서 그 옛날 꽃같은 장선 낭자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게 되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어둠이 사방에 깔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먼 길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장선 낭자는 마침내 바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장선 낭자와 헤어진 청년 왕건은 궁예를 쓰러뜨리고, 고려국을 침략했다. 도읍을 개성에 정하고 국정을 튼튼히 쌓으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고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미처 깨닫지 못하였으나, 밤이면 장선 낭자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다. 만산에 백설이 휘날리는 어느날 고려왕이 된 왕건은 조정 중신들에게 나라일을 당부한 다음, 몇몇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매에도 잊지 못하던 장선 낭자를 찾아서 길을 떠났다. 고개를 넘고 기억을 더듬으며 산등성이를 올라서자 저편 바위 위에 이상한 물체가 보였다. 이상한 생각에 바위 앞으로 접근해 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 다가가서 보니 다름아닌 장선 낭자인 것이다. 그러나 낭자는 이미 숨져 있었다 왕건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낭자! 낭자가 이렇게 되다니 웬 말이오?어서 눈을 떠보오! 내가 이렇게 왔지 않소? 한참 몸부림치며 울고 있던 왕건은 신하들의 일깨움으로 정신을 겨우 차리고, 산아래 장선 낭자의 집으로 낭자를 안은 채 걸음을 옮겼다. 주인을 잃은 빈 집엔 찬바람만 감돌 뿐이었다 왕건은 신하들과 같이 장선 낭자를 장사 지내주었다. 왕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

지금도 그 옛날 장선 낭자가 낭군이 오기를 애탏하게 기다리다 숨져간 바위가 있으며, 그 모양이 꼭 거북의 모습을 하였다 하여, 후세 사람들은 구정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척면에 있는 이 바위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장선 낭자의 애끓는 사랑의 애화가 서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장선 낭자 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7. 朴道淵의 아내 이야기

광지원에서 남한산성으로 오르는 계곡에 송암정이라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다. 호군의 겁탈을 피해 이 바위까지 도망쳐온 한 미녀가 투신해 죽은 것이다.

이 송암정에는 밤이면 그 미녀의 원귀가 곡을 하기에, 나무꾼들도 밤늦게 그 곳을 지나는 것을 꺼려왔다 한다. 이곳에 뻗은 열녀의 인맥은 백제때 개루왕의 육정으로 두 눈을 둘려빼인 채 바다를 표랑하였던 도미(광주 사람이 다)의 아내로부터 시작되었다.

순수하고 인간적인 열맥이 이조때 들어와 예를 지상으로 삼는 유교 모럴에 빠문어 개념적이고 비인간적인 열맥으로 변질되었음을 본다. 이를테면 이천에 살았던 박도연의 아내 이씨의 케이스를 보자.

실화로 볼이나자 이씨는 불속에 뛰어들어 갔다. 그 안에는 늙은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지금 이씨가 불속에 뛰어들어 갔다 할제 시어머니를 구하려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열맥의 전통일 수 있다. 한데 미처 집을 뜯빠져 나오고 불에타 쓰러진 이씨의 손에는 조상의 신위가 쥐어 있었던 것이다. 살아있는 시어머니보다 신위가 더 소중했던 이 열맥은 어느만큼 개념적이고 비인간적인가.

이토록 한국의 여인들은 하나의 <추상>을 위해 그의 인간을 생지 시켰던 것이다. 어찌 죽어서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가서 살라는 말에 대구하여 살아서도 죽어서도 못살 곳이 광주란 말이 나왔을지도 모른다.